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69호〉
2000년 9월 26일(화)

창간 1956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김상배 편집장 정혜성 인쇄인 홍은주 신문사 961-4151, 962-7128 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통신) 0335-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27대 외대내 임산리 산 6번

3 사진뉴스

계열제 기획. 이번엔 학교 밖으로. 상지대 교수와 중앙대 문과대학 학생회장 인터뷰.

5 기획
전운이 가시고 있는 코소보.
하지만 미군의 폭행, 범죄 행위는 여전하다고 하는데.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기도 전에 다시금 상처받고 있는 땅 코소보 문제를 들여다 봤다.

6 주제기획

학부제. BK21 등 굵직한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왔던 지난 2년 반을 평가합니다.

9 학보뉴스
지, 2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보고싶었습니다.
너무 기다가 됩니다.
바로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외대 속에 세계를 함께 호흡 해 보는 자리,
어떤 행사가 준비되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얼른 9면으로 오세요!

10 학사뉴스

누군가 당신의 이메일을 훔쳐본다면? 통신검열법 제정으로 인한 검열의 실태.

11 사회뉴스
1년여만에 부활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현직 고교 교사까지 연행해간 국가정보원.
과연 민혁당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시기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일까?
11면에서 민혁당의 실체에 접근해 본다.

중장기발전안 반대 광범위하게 진행

총학, 실무협상에서 등록금 · 교통문제 등 학자요구안 전달
학교당국, 학생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건 일부 수용

대학당국이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과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민주적 학사운영 등을 들며 중장기발전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철회, 교통문제 해결 등 학자(학원자주화투쟁)요구안을 대학당국에 제출한 상태며, 이러한 투쟁흐름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 오는 26일(화) 정기학생총회를 기점으로 전면화 될 듯하다.

크게 △독단적 중장기발전안 강행 저지와 올바른 발전안 수립 △민주적인 학사운영 보장 △등록금인상 철회 △교통문제 △학생회 간부 장학금 50% 축소 강행 철회 △복지시안 등이 총학생회가 학자요구안으로 제시한 항목인데 이 중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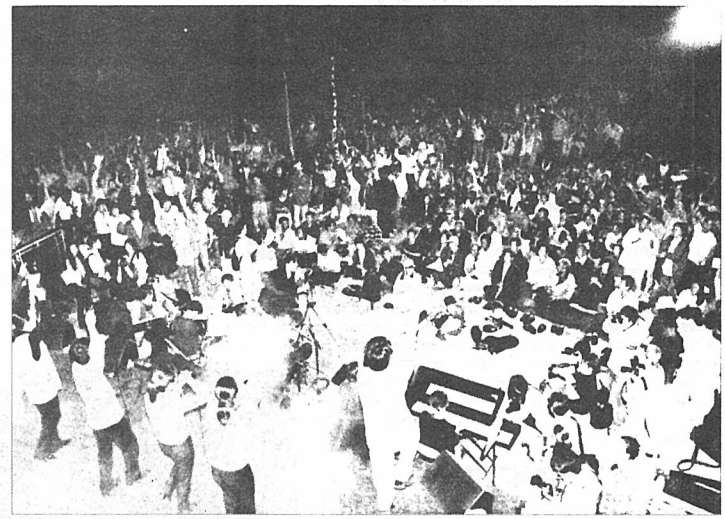
지난 21일(목) 총학생회측과 학생처장 및 총무처장이 대면한 실무협상에서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정구윤(동학 · 중국어 94)군은 "학교측은 지난 학기 공청회에서 양배움터 중복학과 통폐합이나 재정확충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중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해 중복학과통폐합을 시행하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이러한 논의기구에 참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처장 조기성(생명공학)교수는 "구조조정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 · 간접적인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았으나 총학생회측이 제안한 2학기 공청회 개최는 실효성 여부를 거론하며 뚜렷한 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청회의 실효성 여부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해 발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총학생회측의 항변이다.

이 외에 일방적인 등록금인상을 철회하고 등록금 조절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과 노선버스의 정상운영 · 셔틀버스 확충과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제2기숙사 건립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와 관련 최정원(동구어 · 포어 95)군은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의 경우, 실제로 등록금이 삭감된 학교가 있는데, 우리학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차이다"며 "학생회가 강의실 방문이나 선전전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측으로부터 받는 부당함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대 학생회는 지난 21일(목)부터 시작한 '학자요구안 관철을 위한 매일 집회'를 교양관 앞에서 계속 이어가면서, 오는 26일(화)에는 정기학생총회를 열어 학자실천단을 발족, 총장, 이사장실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며 학부모와 각계인사들이 참석하는 세민전 행사에서 대국민선전전도 계획하고 있다.

우혜나 기자 mimo329@hanmail.net



매향리를 민주의 품으로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을 위한 범국민운화제'가 지난 23일(토) 매향리 범대위 주최로 열렸다. '빼앗긴 매향리를 민주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을 가진 후 매향리 주민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고향의 봄'을 부르고 한데 모여 어울리는 대동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사진부

오늘, 용인배움터 5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개막

'새천년 그 희망의 중심' 용인배움터 2000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26일(화)부터 10월 13일(금)까지 18일간 학내와 KBS홀, 장동 A&C, 대학로 등지에서 열린다. 서울배움터 세민제와 번갈아 격년간 열리는 세민전은 외대특성을 살린 전세계 문화를 공유하는 장으로 올해 다섯해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세민전에서는 '학술제'가 내실있게 준비돼 그간 요구받았던 학술제의 내용성 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세민전 첫째주에는 총학생회 정기총회 및 개막식을 시작, 학내영화제가 준비된다. 둘째주간은 10월 2, 3일(화) 양일간 대학로 한국방송통신대와 마로니에 등지에서 20여국의 음식과 풍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풍물음식전이, 3일(화)부터 5일(목)까지 장동예술극장에서 세계영화제가 열린다. 이번 세계영화제는 '고도화된 문명속의 인간'이란 주제로 이시대의 문제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찰 등 새천년의 화두를 짚어 볼 수 있는 여러나라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5일 폐막에 앞서 '스크린쿼터 문화 연대회의'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노래로 쏘아 올린 태양)상영과 좌담회를 개최, 수익금을 이 단체에 기탁할 예정이다.

세민전의 '꽃' 민속공연은 6, 7일(토) KBS홀에서 진행된다. 이제까지 역사를 개척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인간의 삶을 주제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각나라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주간에 학내에서 열릴 왕산학술제는 각과의 특성을 살린 전공발표회와 각 주제별로 토론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통일시대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북한사상토론회'는 또한 통일을 이끌어내는 데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학내외에서 열리는 행사들은 외대학생은 학생증지참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한다. 풍성한 외대문화의 큰 잔치에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한판 어우러짐을 기대해본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27일(수) 확운위 열려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오는 27일(수) 열려 전학대회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금) 확대운위가 정족수 미달로 연기돼 다시 열리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정비 논의 △외대발전추진위원회(건) 인준 △상반기 외대발전투쟁 평가 △총학생회 2학기 사업보고 △정세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장 김윤환(사회 · 신방97)군은 "2학기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는 만큼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복학과 정원축소 잠정 결정

양 배움터 중복학과의 정원을 잠정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지난 15일(금) 열린 학사구조 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당시 자료들을 검토한 개인별안을 제출했다. 또한, 13명의 위원 중 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중점적인 개편안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다음달 6일(토) 열리는 4차 회의까지 소위원회회는 2, 3개의 개편안을 제출한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처장 한형곤 교수(이태리어) "소위원회가 준비 중인 개편안들은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웅 기자 soma-j@hanmail.net

한총련, 29일(금)총궐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번달 29일(금) 전국 곳곳에서 '9민'학살 진상규명, 매향리 폭격장 전면 폐쇄, 국가보안법 철폐,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한총련 총궐기'를 진행한다.

이번 총궐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중심에 놓고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완전 철폐'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총련은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마련하여 많은 학생들과 함께 총궐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학교 서울배움터는 이날 2시 애국외대 결의대회를 가진 후 4시 서울지역 총궐기로 결합할 예정이다.

사회부

수시모집 2.66대1 경쟁률

지난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진행된 2001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242명 모집에 645명이 지원해 2.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작년에 2.85대 1의 경쟁률 보다 다소 낮은 것이다. 작년 보다 모집정원이 80명 늘어난 올해 수시모집은 자기추천 전형과 산학협동추천자 전형을 새로 신설해 각각 5.46대 1, 1.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작년 TEPS에서 FLEX로 시험과목이 바뀌었지만 0.59대 1의 낮은 지원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입학과장 정인환씨는 "경희대, 이화여대 등과 접수일이 같아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 것 같다"며 "내년부터 수시모집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수험생에게 호소력 있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수웅 기자 soma-j@hanmail.net

진실을 열어줄 철길

▲'천둥처럼 큰 기적소리로 잠든 이를 깨우며 거침없이 달려간다. 갈라져 살아온 우리 모두를 싣고…가자! 철마야' (가자! 철마야-조국과 청춘)

노래가사에만 존재할 것만 같았던 경의선 기공식이 지난주 한반도를 기쁨에 술렁이게 했다. 첫 흙을 삽으로 퍼올리며 환하게 미소짓는 관계자들의 시선은 벌써 저 너머 북으로 향하고 있었다. 북의 신의주와 남의 금촌을 잇는 이 철길은 50년간 멈춰 있던 녹슨 이념을 밀어내고 쾌속질주하는 통일시대의 또다른 상징물이 될 것이다.

▲분단으로 국토의 허리가 잘리듯 갑자기 멈춘 채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냈을 우리의 철마. 그 철마가 점점 녹이 슬어가는 동안 남과북은 서로의 벽을 더욱 높이 쌓았던 적도 있었다. 또한,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서로가 빚어낸 비밀은 오해를 높여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아직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북파간첩의 진상, 북의 사회의 폐쇄성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 등등. 남과북을 둘러싼 연이은 간첩 · 공작원 사건들은 또한 그 벽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우리는 높은 벽 속에 가리워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빼앗겼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단지 기차가 다니느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문제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서로의 교류를 통해 얻는 오해와 불신의 해소는 그 어떤 성과보다도 크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년이 되년 남과 북 . 서로에 대한 문화, 사회개방은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크고 넓게 열린다는 전망이 있다. 남북 사이의 실질적인 벽이 허물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친 경의선 철도는 그 개방속도에 가속을 붙일 것이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장면에서 보여지듯,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의 감격 속에서 느껴지듯 '만남'은 백마디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직접 보고 느끼는 서로의 모습이 편견과 오해를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불신의 장벽 사이로 넘나들 우리의 평범한 민중들은 이제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편집장oedae98@hanmail.net

2000년 9월 26일 769호 외대학보

서 울

재입학 시행규정 변경

오는 10월 1일(일)부터 재입학이 1회로 제한된다.

교무처는 학사 엄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재입학 횟수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재입학 시행규정에 1회에 한해 허가한다는 4조 2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재입학을 했던 학생들도 똑같이 이번 개정된 재입학 시행규정을 적용하겠다는 학적과 방침도 정해졌다.

단, 재입학 시행규정 3조 2항의 '학업성적불량, 재한학년초과, 징계로 제적된 날로부터1년 이상 경과된자'에 한해서는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관련 학적주임 류춘상씨는 "성적 불량자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재입학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가을농활, 순창과 매향리에서 진행

애국외대 가을농활이 오는 30일(토)부터 10월 3일(화)까지 순창군과 매향리 일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순창군외에도 매향리 사격장 철폐 투쟁이 계속해 진행중인 매향리 1,2개 마을에서도 진행된다. 현재 순창군 농활대의 경우 구체적인 일정과 기치 등을 논의 중에 있으며, 매향리 농활대는 현재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매향리 농활대장 환인표(사회·정치외교 97)군은 "매향리에서의 농민들의 현실과 함께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대교협 법학분야 '우수학교'로

우리학교 법대가 지난 13일(수) 발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법학분야 평가에서 건국대, 경북대, 동국대, 서강대 등 37개 대학과 함께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대교협의 학문분야별 평가는 법대가 설치된 전국 7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연구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교육목표 및 성과, 학생 등 4개부문 평점이각각 100점만점에 90점 이상인 대학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대학에는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법학과 학과장 김동훈 교수는"우리학교는 시설과 교수 대 학생 비율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 평가기준이 각 학교 측에 미리 보고 안된 점, 평가위원들의 공정성 등을 놓고 일부에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각 과, 단대 정기총회 개최

사범대 - 오는 27일(수) 대학원 소강당에서 5시 30에 열린다. 이번 정기총회는 특별한 논의 안건없이 상반기 활동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범대 각과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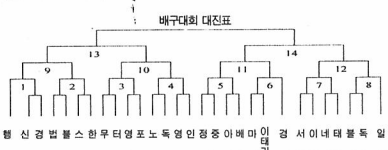
정치외교학과 - 오는 27일(수) 6시에 열린다. '파발전추진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신입교수로 부임한 이상환 교수의 소개도 진행된다.

사회대 - 오는 30일(토) 노천에서 '소통과 교유의 장으로, 두 번째'를 주제로 열린다. 1부에서는 사회대학생대표자회의의 보고와 자유토론을, 2부에서는 사회대 문예패들의 합동공연과 자기자랑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문화제를 진행한다.

29일(금)까지 배구대회 계속돼

동문회장기 교내 배구대회가 오는 29일(금)까지 계속된다. 지난 22일(금) 끝난 여자부 예선에서는 중국어과와 독일어교육과가 결승에, 네덜란드어과와 영어과가 3, 4위전에 진출했다. 남자부 경기는 오는 28일(목)까지 예선 경기가 진행되며, 29일(금) 모든 결승과 3, 4위전이 12시부터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배구대회에서는 서비스시에 네트를 건드려도 경기를 계속진행되며, 남자부의 경우는 사이드 아웃제(서비스권을 인정하는 것)를 다시 적용한다.

배구대회 대진표



각 단대 대표자 회의 진행

사회대 - 지난 19일(화) 18명 중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선거자금 한도 금액을 500만원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춤, 2회 경고 누적시 후보자격 박탈,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등 선거 관련 법 엄정화 논의 △방 중 사업보고 △2학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동아리연합회 - 지난 20일(목) 50%참가 한 전체동아리대표자대회가 열렸다. △2학기 국별 계획사업계획보고 △동아리 페스티발 준비, 지도교수제 논의 △고전어연구반 정식동아리 인준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고전어 연구반은 투표인원 42명 중 3/2가 넘는 36명이 찬성으로 정식 동아리 자격을 갖게 됐다. 이와 관련 동아리 연합회 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장 시간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표들이 끝까지 자필 지켜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사범대 - 20일(수) 인문관 403호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성폭력규약 보고 △정세보고 등이 진행됐다.

서양어대 - 지난 25일(월) 개최됐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상반기 투쟁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반미실천단 발족식이 진행됐다. 이후 반미 실천단은 매일 토론과 감의실 선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ETP 한국어 집중교육기간 종료식 열려

유럽연합 기업인 연수 프로그램(ETP) 중 한국어집중 교육기간 종료식이 지난 15일(금)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연수생을 비롯해 프로그램 관련 종사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종료식에서 조규철 총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것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잘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어 교육과 3시부터 5시까지 한국문화 등을 교육받았다.

이와 관련 영국에서 온 D.VOSPER씨는 "한국의 경제 실정과 관련해 대학생들과 토론한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았다"며 "한국어가 배우기 쉽지 않은 만큼 교육과정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며 미네르바 미팅이 지난 23일(토) 서울배움터 노천극장에서 동문·교수·직원·학생 등 약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유열과 이매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송승환 동문이 기획한 난타공연과 태사지, 백영규 등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사진부 hyodeng@hanmail.net

용 인

전국아마추어 아구 선수권 대회 양 배움터 야구부 주최

전국 아마추어 아구 선수권대회가 9월 3일(일)부터 12월 10일(일)까지 우리학교 양 배움터 야구반 주최로 열린다. 전국 33개 대학의 야구부들이 4개조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될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81, 85, 86, 92년도 4번의 우승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 배움터 야구부 감독 김성훈(동학·태국어 94)군은 "그동안 연습을 꾸준히 했고 팀웍이 탄탄한 만큼 우승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학회장 김해수군 당선

지난 20, 21일(목) 열린 사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김해수(인문·사학 94)군이 당선됐다. 김군은 이번 선거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교류 활성화 △홈페이지 제작 △과 모임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활동을 펼쳐 나갔다. 재적인원 134명중 96명(71.8%)이 참여한 가운데 94.7%의 지지를 얻어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군은 "지지율이 높은 만큼 책임감이 많이 느껴진다"며 "광소선, 후배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거리감이나 어색함을 줄일 기회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29, 30일 청랑제 열어

기숙사 축제인 청랑제가 '하나되는 우리'라는 생각을 고취시키고 기숙사의 발전을 의의로 오는 29, 30일(토) 양일간 기숙사 야외 무대에서 진행된다. 로그아웃, HUFS 응원단, 외비가디, 슬랩업 등 동아리 공연과 함께 레크레이션, 가요제, 댄스타임 등 학생들의 참가로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은 사생회장 한동진(경상·무역 96)군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힘썼다"며 "함께임을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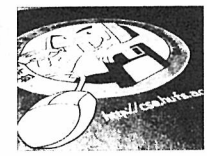
배움터 곳곳 복구공사 진행

방중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캠퍼스의 곳곳에서 복구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모현학사 경사면, 학생회관 및 도서관 경사면 복구공사, 인문대 앞 수로정비, 어문대 계곡정비 및 수중보 설치공사, 명수당 토사제거 및 청소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공사에 대해 관리주임 유기찬씨는 "우천 관계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컴·공과 공대건물 앞 캐릭터 그려

컴퓨터공학과(컴·공)는 지난 6일(수)부터 8일(금)까지 공대건물 앞에 바다그림을 그렸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일러스트 작업으로 완성된 캐릭터는 컴퓨터를 사람 모습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회장 서한석(95)군은 "캐릭터를 보면서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컴퓨터 공학과에 대해 생각해 주는 것 같다"며 "그림작업을 도와준 그림사람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대의 다른 과 또한 바다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 홈페이지 개설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홈페이지는 크게 학생들의 의견 수렴란과 총학생회의 공지 사항 나뉜다.

"7000의 소리"는 복지 사안과 관련된 주제를 정해 학생들의 투표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학지투쟁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자실천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총학생회 주요 행사일정과 세민전 일정 등을 공고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선전국장 성태제(동구·루마니아어 94)군은 "홈페이지가 학우들과 학생회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며 "홈페이지에 대한 메뉴를 공모하고 있으니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글을 올려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대혁군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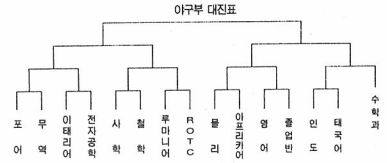
제어계측공학과 임대혁(94학번)군이 지난 27일(일) 외대 천리안 통신동호회 단합대회중 강원도 동해에서 익사사고로 사망했다.

현재 회장 및 대표시삽이었던 임군을 추모하기 위한 사이트(www.dolcom.co.kr)가 개설되어있다.

야구부, 부총장배 교내 야구대회 개최

교내 이마추어 야구동아리 유니온이 부총장배 교내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총 15팀이 참가하는 이번 야구대회는 야구동아리 홍보 및 이미지 제고, 각과 단합을 목적으로 9월 25일(월)부터 10월 13일(금)까지 열린다. 세민전 기간 중 행사가 있는 과는 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야구부 감독 김성훈(동학·태국어 94)군은 "야구부의 유일한 대내 활동인 만큼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며 "부담 없이 참가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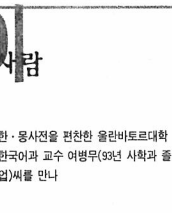
야구부 대진표



이 사람

외국어 교육만큼 한글의 세계화에도 힘씁시다

한·몽사전을 편찬한 울란바토르대학 한국어과 교수 여병무(93년 사학과 졸업)씨를 만나



13세기 중앙아시아를 누비며 세계를 주름 잡던 광활한 대초원의 나라, 징기스칸의 나라에서 한글의 세계화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몽골에서 '한·몽 사전'을 편찬한 우리 학교 동문 여병무(93년 사학과 졸업)씨이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운 몽골 울란바토르대학 한국어학과 학과장으로서 한글보급, 교육선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여교수는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서 효과적인 한글보급을 위해 사전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편찬 동기를 밝힌다.

"선교활동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 힘들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전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여교수의 목소리에는 만족함이 묻어 났다.

또한 "편집에 가장 신경을 썼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집사람과 제자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미 여씨는 지난 94년 부인 강선화씨와 '여병무·강선화 한몽소사전'을 편찬한 적이 있다.

울란바토르대학 한국어학과, 한국학 연구소에서 편찬된 한몽 사전은 관용어, 합성어, 유의어등 한국어의 세밀한 부분까지 수록되어 있어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93년 선교사로 몽골에 나가게 된 여교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7년째라 힘든 부분들은 줄어들었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옛날을 회고했다.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로 한국이 몽골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어 열풍이 대단하다. 한국어 교육이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10월 9일 한글날에 맞추어 출판을 하려 했으나 사정상 한국에서는 9월 초, 몽골에서는 9월 20일에 출판했다. 26일에는 출판을 기다려온 사람들과 작은 기념식도 가질 계획이다"며 그곳의 들뜬 분위기를 전했다.

사전 편찬뿐 아니라 여교수는 작년 몽골에 있는 '한국교수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몽골에서 2번째로 한국어 능력시험을 주관했고, 한국역사, 경제론 강의도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교수는 "한글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외국어대학교가 외국어 교육에 힘쓰는 학교이긴 하지만 한글교육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타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있지 말고 세계를 향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여교수의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 것이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여병무 교수가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관계로 전화로 인터뷰를 대신했으며 사진 또한 실지 못합니다.

주간일정표

	25일(화)	26일(수)	27일(수)	28일(목)	29일(금)	30일(토)
서울	서양어대 학생 대표자 회의		사범대 정치외교학과 정기총회			사회대 정기총회
용인	포르투칼어-무역과 교내야구대회				청랑제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대학원생	
	아침	점심A	저녁	백반	일품요리
월 (25일)	북어국밥 (₩1,500)	콩나물비빔밥 (₩1,200)	닭계장 (₩1,400)	잡배우거지국 (₩2,300)	낙지볶음덮밥 (₩3,200)
화 (26일)	소고기국밥 (₩1,500)	짜장정식 (₩1,500)	설렁탕 (₩1,500)	건새우아욱국 (₩2,300)	산채비빔밥 (₩2,700)
수 (27일)	오징어볶음백반 (₩1,000)	상추불고기비빔밥 (₩1,400)	대구매운탕 (₩1,400)	콩나물밥은국 (₩2,300)	갈비탕 (₩3,500)
목 (28일)	생선조림백반 (₩1,000)	순두부찌개 (₩1,300)	해물잡탕밥 (₩1,500)	무우밝은국 (₩2,300)	오므라이스 (₩2,500)
금 (29일)	선지해장국 (₩1,500)	닭불고기덮밥 (₩1,500)	돈육김치볶음덮밥 (₩1,400)	두부호박새우짜국 (₩2,300)	설렁탕 (₩2,7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1	중식2	석식	조·중식	석식	탕류
월 (25일)	콩나물비빔밥 (₩1,400)	육개장 (₩1,800)	준비안됨	콩나물국 (₩1,400)	호박된장국 (₩1,400)	순두부탕 (₩1,800)
화 (26일)	버섯볶음덮밥 (₩1,400)	돼지고기고추장볶음 (₩1,800)		쇠고기미역국 (₩1,400)	계란파국 (₩1,400)	민두유개장 (₩1,800)
수 (27일)	김치볶음밥 (₩1,400)	닭감정 (₩1,800)		감자다시마국 (₩1,400)	근대된장국 (₩1,400)	어묵정식 (₩1,800)
목 (28일)	잡채덮밥 (₩1,400)	광양비빔밥 (₩1,800)		김치두부국 (₩1,400)	햄고추장찌개 (₩1,400)	닭곰탕 (₩1,800)
금 (29일)	중국식볶음밥 (₩1,400)	사리곰탕 (₩1,800)		우거지된장국 (₩1,400)	복어계란국 (₩1,400)	뭐깁운동 (₩1,800)

학점 채우려고 교양과목 수강한다

애매한 개론식 강의 세분화하고 형식적 강의평가제 변화 필요

현재 우리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양과정이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의 확일화되고 주입식인 교육으로 일관되는 연장 수준이며 양적인 면에서도 개설된 과목의 종류가 빈약해 학생들이 마지못해 들을 수밖에 없고 빛및 강의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과밀현상까지 낳고 있어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실시되는 교양과정은 5년 전 학제개편 때 바뀐 교양과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개편된 교양과정도 학생들의 요구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교수중심으로 개편됐다. 교양과정 위원회 부주임 오시근(불어)교수는 "교양과목이 1년 단위로 개설되지 않는다. 각 단과대학 교양과목 개설 현황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묻고 교과과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해, 종합교과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설 신청 상황 등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점기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문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다보니 및 년 째 같은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손창배(서양·스칸디나비아어 96)군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 봐도 교양커리가 매번 똑같다. 관심 있는 것만 들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음식과 시험에 신경쓰면 학점 받기는 쉬우나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교양과목을 세분화, 체계화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도 상당하다.

포괄적이고 애매한 교육과정의 형식을 취한 '개론' 같은 과목이 구체적인 과목으로 나뉘지 않아 강의주제가 너무 넓어서 따라가기 힘들거나 강의내용의 깊이가 없이 그 학문의 '맛'만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성웅(사회·정치외교 95)군은 "'서양사 입문'이라는 과목보다는 서양 고대사의 이해, 서양 중세사의 이해 등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교수입장에서 훨씬 가르치기도 수월할 것이고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우리학교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여성학' 과목을 여성과 법률, 현대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의 심리적 특성, 한국 여성운동의 연구 등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교양수업 운영에 대해, 지난 학기 여성학 수업을 들었다는 박은영(사범·불어교육 96)양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꺼번에 수강하기 때문에 수업이 개론서 수준에서 그친다"며 "질 높은 수업을 위해서라도 학년별로 강의를 배치 해 깊이 있는 수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양을 전학년이 함께 수강하면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 하더라도 16주 동안 개론 성격을 띤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학년별로 교양강의를 수강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1, 2학년과 3, 4학년으로 구분하여 강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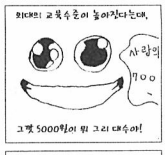
이러한 교양과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의평가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도 제고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강의평가서를 작성해도 평가내용이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다. 서울대에서 계절학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 이종하(서양·노어 94)군은 "서울대에서 '제국주의'와 '국제정치학'을 수강했는데 제국주의 수업의 경우, 교수의 조언을 얻어가며 본인이 발표하고 요약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갔다. 쉬운 수업은 아니었지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교양과목의 진부한 수업방식과 내용을 평가할 방법이 학기말, 한차례 실시되는 강의평가서가 전부인데 평가서의 문항이나 전체내용이 대체로 형식적이라고 한다.

단순한 점수 평가가 아닌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평가의 목적 또한 되살려야 할 것이다.

우혜나 기자

정모군 〈20〉

정현도



학부·계열제 이대로 좋은가 - ② 타대학 사례로 본 학부 계열 문제 해결방안

"강제적인 도입, 비효율성 가중"

학부제, 계열제 도입의 배경과 의미는

교육에 시장주의 경제원리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로의 변화는 교육에서 배출하는 인적자원 형태도 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좁고, 깊게 짜여진 우리대학의 학제를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게끔 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들면 행정학과, 무역학과 등은 대학원 과정에 포함된 커리큘럼이다.

이러한 학부제의 도입에 대해 대학이 기능적 노동인력만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최근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문제의 해결이라고 대답했다. 성적자나 고위 관료를 배출하던 초기의 대학들과 지금의 대학은 다르다. 물론 대학이 직업훈련소로 전락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계열제 도입이후 문제시 되는 것은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분을 목적으로 시행된 학부제는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비효율적 배분을 낳고 있다. 학부제 시행 첫해 연세대 삼대는 통계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2명이었고, 서강대의 경우 신학지원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 했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학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상지대 박정원 교수(경제학과,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

상지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강단에서 느끼는 학부제의 폐단은

상지대의 경우는 현재 6개의 단과대로 구성돼 있는데, 학부, 학군의 형태로 2년째 학생들을 모집했다. 내가 속해 있는 경제학과의 경우는 무역학과와 함께 국제통상학부를 이루고 있는데, 학부 정원 80명 중 12명밖에 되지 않는다. 계다가 이 학생들도 선택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다소 낮은 것 같다. 교수로서 힘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계열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는 현재 행재정적 지원의 불이익을 통해서 모집단위광역화 정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교육부의 태도가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일방적 모집단위 결정 이젠 없다"

계열제의 도입과 그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98년도에 처음 도입된 계열제는 올해까지 매년 그 형태를 바꿔가면 존속했다. 가장 큰 피해는 학문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없이 계열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또한, 전공선택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기학과로 몰리는 바람에 분반문제, 수업진행에 곤란함 등 교육여건이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장 김민찬(정소년학과 4)

'모집단위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

'계열제 철폐', '모집단위조정위원회', '전공선택권의 보장'의 구호로 진행된 투쟁의 결과이다. 모집단위조정위원회는 문과대내의 모집단위의 결정을 하게 된다. 구성은 문과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학생대표 3인과 교수대표 3인으로 돼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년 5계열 2학과(영어영문(주,야), 어문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사회복지계열, 사회민속계열)체제이던 문과대의 모집단위를 2001년도에는 3계열 8학과(국어국문, 사학, 철학, 영어영문(주,야), 일어일문, 심리, 문헌정보, 서양어문계열, 응용사회계열, 사회민속계열)체제로 바꾸는 성과가 있었다.

모집단위 조정과정에서 학교측과의 입장차에서 오는 문제점은 없었는가

계열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선 양측이 공감하는 바였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정부의 모집단위광역화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받을 불이익 등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계열제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들 만이 과제 복원논의의 대상이 되는 한계가 있었다.

계열제 문제와 관련한 이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총투표가 진행중이다. 투표결과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교육여건의 개선, 강의개설요구, 강의 평가제 도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학과제 복원을 위해 아직까지 계열제로 남아 있는 학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타 단과대학들과의 공동대응도 모색할 것이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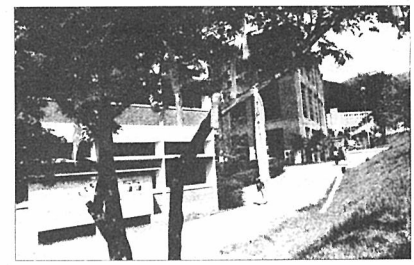
매향리 오폭과 한미안보협의회의

미국의 이중적 태도 그대로 드러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매향리.... 하지만 여전히 매향리는 아직 식을 때가 아님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1일 오후 3시경에 미공군 폭격기가 농섬 중심으로 반경 8000피트 밖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조업 중이던 주민을 향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위급한 상황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선착장으로 철수했으나 또 다시 갯벌에 폭탄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과거에도 있었던 이번 사건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미군 폭격장이 있는 한 말이다. 바로 이 날 오전 조심태 국방위원장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노근리 사건, 미사일통제체제(MTCR)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제기된 현안들을 가급적 빨리 해결하기로 의견을 보았다.

정상회담회의 이후 가속화되는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한미동맹차원을 한 차원 격상시키지면서 생계를 위해 갯벌에서 일하는 매향리 주민들에게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폭탄을 두 번이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이번 회담은 25, 26일로 예정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 대비하여 자주적인 남한의 협상을 제한하려는 인상이 짙다. 한강에 독극물방류사건, 주한미군에 의한 살인사건, 성폭행 그리고 미군부대 종사 노동자들의 인권유린등등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접하며 진정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미미로 주객이 전도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군당국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돼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만 반환 및 출입이 가능하기에 지난 21일 미군폭격에 주민이 목숨을 잃어버려도 어떤 피해에도 정부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매향리를 비롯한 전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데모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미상위조약 미군의 기지,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없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군기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기한이 만료가 되기 및 해전부터 기지협상을 통해 기간을 연장한다. 미군측의 기지 사용기간 연장요구를 거부하여 결국 미군이 철수시켰던 필리핀의 1992년이 우리에게도 오도록 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 1항인 자주적인 통일을 이행하는 데 필수인 것이다.



흥흥해진 소망 지난 학기 용인배움터 등록금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삭감을 기원하며 천에다 글을 적어 나무에 매달았다. 2학기 등록금 투쟁은 다시 시작됐건만 학교측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그래서일까 등록금 인상 반대의 소망들이 오히려 흥흥해만 보인다.

2001학년도 전기 대학원 특별전형 학생모집

■ **모집과정·학과 및 인원** : 석사·박사학위과정 각 학과 약간명

계열	석·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열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 ★일본어, ★아랍·아프리카어, 아태리어, 포르투갈어, 동남·남아시아어(태국어, 마·인어, 베트남어, 인도어), 동유럽어문학(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유고어), 북유럽어학(스칸디나비아어, 네덜란드어), ★언어학, ★국어국문학, ★비교문학, ★철학, ★사학, 정보·기록관리학(신설),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러시아학, ★국제관계학(아시아,북미,중남미,유럽연합,동유럽,중동,아프리카 등 7개 지역전공), ★정치외교학, ★행정학, ★법학, ★신문방송학, ★무역학,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학
자연과학계열	★수학, ★물리학, ★화학, ★통계학, ★환경학, ★생명공학
공학계열	★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전공) ★전자·제어공학, 산업공학

※ ★표시가 있는 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학위과정 함께 모집하는 학과임

■ **제출서류**

가. 석사학위과정 : 1) 입학지원서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3)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 박사학위과정 : 1) 입학지원서
2)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3) 지도교수 추천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4) 석사학위 논문 1편

■ **전형방법** : · 서류전형
· 구술시험

■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9월 27일(수)까지

나. 수험표 교부 : 2000년 10월 6일(금) 오후 2시

다. 전형일시 : 2000년 10월 7일(토) 오전 10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 (02) 961-4104, 962-7117 인터넷 http://www.hufs.ac.kr

세계로 웅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험생을 위한 「외대소식지」 명칭변경 공모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입시홍보용 뉴스레터(연2회 정도 발간, 현재 통권32호 발간)인 「외대소식」의 제호를 고교생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제호로 아래와 같이 공모후 변경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명칭변경 목적: 현재 각 대학의 수험생 뉴스레터는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본교의 「외대소식」이 딱딱한 느낌임.
신세대의 호감도를 높일수 있는 명칭을 공모후 2001학년도 입시로부터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2.명칭변경 방법:현상공모(학교 홈페이지, 외대학보 게재, 포스터 게재부착)
3.시상금
①당선작(1명): 200,000원
②가 작(3명): 70,000원
4.공모대상: 교수,교직원,재학생,동문등 전 외대인.
5.제출방법: 입학과 직접 제출, 입학과 FAX, E-mail로 접수.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서 제출
①성명, 소속(학과,학번) ③연락처 ③공모 명칭 ④함축의미.
6.문의처: 교무처 입학과(02-961-4473), FAX(02-959-0392),
E-mail: jhs0848@hanmail.net.
7.공모기간: 9월 18일(월)부터 9월 29일(금)까지, 2주간.
8.당선작 발표: 10월 9일(월), 홈페이지, 외대학보, 입학과 게시판
9.기타(타대학 뉴스레터 명칭).
연세대(오라 연세로 가자 세계로), 고려대(OKU, Only Korea University약자), 서강대(알바트로스,학교 새),성균관대(성대로 가는 길, 은행나무, Young Dr, 충3중), 이화여대 (ㅎㅣ화로), 한양대(한양스클라), 중앙대(여기는 중앙), 동국대(김은 동쪽에 있다), 아주대(앞서가는 사람들), 가톨릭대(Whiz-kid,전문적 지식과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젊은 두뇌, 실리콘밸리 근무자들을 지칭).

2000. 9. 26

교 무 처 장

5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세계 풍물 음식전
10월 2·3일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로

세계 영화제
10월 3·4·5일
정동 A&C 극장

세계 민속공연
10월 6·7일 늦은 3시 / 7시
여의도 KBS홀

학 술 제
10월 10·11·12일
한국외대 용인배움터

홉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수체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디통신(하나무 OEDAE, e-mail oedaex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홉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변화된 생각들을 수용해야

현재 대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지만 과거 단순한 방법들을 고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대학 내에서 변화된 생각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보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무기명〉

문화행사 자세히 보도됐으면

일반 학생들이 접하지 못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기사가 있어 좋았습니다. 아쉬움이라면 퀴어 영화제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이정인〈서유럽 · 노어 98〉

외부필자보다는 학생기자들의 글이 많았으면

주제기획면이 쉽고 자세해서 좋았습니다. 가끔 외부필자들의 글이 실리는데 전문적이긴 하지만 독자로서는 학생기자들이 직접 쓴 글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직접 쓴 글이 많았으면 합니다.

윤혜정〈서유럽 · 불어 00〉

객관성있는 기사를 다루어야

납북자관련 크로니클이 다소 주관적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사를 바란다.

이윤형〈상경 · 경제 95〉

바로잡습니다

지난 9월5일(화)자로 발행된 768호 기사중

- 1면 우리학교 밥대생 8 · 15특사 기사 중 '장역 8년' → '장역 8개월'
- 3면 광고 산규입학 대상자 → 산규입학요수
- 4면 외대학보에 바란다 중 '이윤재(사회 · 이태리어 97)' → '이윤재(서양 · 이태리어 97)'로 바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외대학보

학교발전을 위한 작은 바램

난 외대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2학기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다되어 간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교 수업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학교에 대한 불신을 넘어 비애감마저 느끼게 한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묻으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매 학기 반복되는 그러한 수업들은 엄연히 존재해왔고 모두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참아왔기에 학교가 이런 상태로 정체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수업에 대해 잠시 언급하자면 난 지난 학기 교양으로 '대중예술론'을 이번 학기에는 '음악과 생활'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다. '대중예술론'과 '음악과 생활' 모두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수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 및 음향매체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기자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 아마 관계자께서는 학교내 후복관과 교양관에는 스피커 시스템과 프로젝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겠다. 수업시작한지 3주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담당교수가 가지고 온 자료 CD 한 장 들어보지 못했고 기자재 담당자는 아직 CDP가 수리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가볍게 생각하면 CDP 망가져서 그것 좀 못 들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아마 수업에 성의가 있는 학생이라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학교의 이러한 무성의한 준비태도는 어떤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비판이 꼭 나쁜 말은 아니다. 긍정적인 해결안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더욱 구체적인 비판이라면 이는 학원 주체 모두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측은 다른 어떠한 학교발전과 관련된 정책 수립보다는 좀더 세부적이고 각론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 말은 학교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다. 아무리 대외 이미지가 좋고, 취직이 잘되는 학교라 한들 그게 대학본래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는 없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의 학교가 되기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측은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수업준비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또 다른 한 주체인 학생들 또한 그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측에 응당 요구할 것은 요구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무언가를 요구하기에 우리의 학원문화는 너무 수동적이고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할 학생회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너무 거창한 것에만 명분이 서고 대의가 서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작은 비판과 열정이 앞설 때 학교는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소한 기자재 준비로 인해 생긴 학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제3자인 강사를 통해 다른 곳으로 전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대량의 광고와 학교의 연구결과의 심질적 공개를 통해서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학교를 거쳐간 지식인들의 영향력은 광고에 비해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학교는 학원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이다.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이 패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기업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이루는 각 주체들 학교, 학생, 직원들 모두 학교에 대해 열려있는 자세로 서로를 비판하고 토론함으로 기본이 바로선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최봉진 〈정보산업공 · 전자공학 95〉

새 직종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망

오는 2004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명칭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여되는 직급은 6급, 첫해의 선발인원은 대략 200~3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험은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2010년경까지는 대략 천 수백명을 상회하는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존의 관료체계와는 달리, 자못 포괄적인 업무상 재량권이 부여된, 일종의 연구원 내지 학예연구사의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많은 수효의 공무원 집단을 새로이 선발하려는 것일까? 바로 각종 기록물의 투명한 관리야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해소하는 중요한 토대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는 그 자체 책임행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 역시 부정과 부실이라는 고질병과 같은 문제가 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98년말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입안되어, 올해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2004년까지는 중앙행정부서에, 2006년까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2008년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그리고 2010년까지는 각대학과 육해공군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각종 기업이나 민간기관에도 관련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인력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학부과정은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반드시 대학원의 기록관리학과를 나와, 기록물의 분류와 보존, 정보화 등에 대한 식견을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근래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원과정에 관련학과를 설치해가고 있다. 내년도가 되면 몇 개 대학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가 우리 대학이다. 우리 대학에서는 정보기록관리학과라는 이름으로 오는 10월 7일에 신입생 선발시험을 치룬다.

현재의 전망으로 2004년까지 각대학에서 배출되는 석사학위 소지자는 약 수백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초기의 시험은 상당히 낮은 경쟁률 속에서 치뤄질 것이 분명하다.

아쉽게도 우리 외대생들 사이에는 이와 관련한 정보가 매우 저조하다. 바라기는 우수한 우리 졸업생들이 이 분야에 다수 진출하고, 나아가 외대 출신의 인맥도 한번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근명 〈사학과 교수〉

100원 동전 5개나 10원 동전 50개로 하자

-은행직원

500원 동전을 크게 만들자

-조폐공사 사장

옛날 임금들은 궁궐에 밭을 만들어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은 미나리라도 가꾸어 보셨는지

-미나리 가꾸는 사람

백지 혹자보

주제: 500원 동전 크기 이상 흡집이 난 과일은 보상이 안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이 까다롭다는데...

의사펀만 들지 말고 농민편도 들어라

-악사

구멍난 과일은 과일이 아닌가요

-구멍가게 아저씨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위원들이 제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지.

-불신맨

다음번 태풍은 국회로 보낼 것이다

-신(神)

수당

박원탁
(터키어과 교수)

사자의 깨달음

어느날 한 사냥꾼이 이른 새벽에 사냥을 하러 심산유곡으로 떠났다. 그날 따라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곤한 몸에 잠시 쉬고자 바위 밑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어디선가 어린 짐승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사냥꾼에게는 그 울음소리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바로 사자새끼의 울음이었다. 총에 화약을 장전하고 바로 사자굴로 들어갔다. 일주일도 안되는 사자 새끼 한 마리가 기어나오고 있었다. 어미는 없었다. 배고파 우는 새끼는 마치 자기를 엄마인냥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미 사자를 잡으려고 기다렸으나 어두움이 짙어서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새끼 사자는 살려달라는 듯이 따라나섰다. 어쩔 수 없이 굶주린 새끼를 안고 집으로 들아왔다. 새끼를 방에 둘 수가 없어서 마당에 있는 양우리에 갖다 놓았다.

사자새끼는 하루 이틀 양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양들이 '에헤헴'하면 사자새끼도 양처럼 '에헤헴'하고 소리내었다. 양들이 들에서 풀을 뜯어먹으면 사자새끼도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라고 있었다.

한편 며칠이 지나 사자새끼의 아빠와 엄마가 사자굴로 돌아왔다. 아니 이럴수가 있을까? 9대 독자인 길동이가 없어졌다. 사자 내외는 몇날몇일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깊은 산들을 헤메며 새끼를 찾고 다녔다.

그 때 호랑이가 나타났다. "아, 형님, 형수님 웬일이세요? 물골이 말이 아니시군요. 무슨 걱정이라고 있으신지?" 라고 물었다. 엄마 사자가 "도련님, 우리 외아들 길동이가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했나 봐요" 하면서 앞발로 눈물을 닦았다.

호랑이는 "형수, 염려마세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면서 그 자리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조카 길동이를 찾아 신고하는 짐승에게는 그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잡아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제서야 호랑이는 "형님, 이제 식사를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세요" 라고 권유했다.

사자 내외는 호랑이 말대로 식사를 하려고 가까운 동리로 내려왔다.

동리 산 언덕에서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 먹으려고 양우리를 내려다 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9대독자 길동이가 양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있지 않은가? 아빠 사자가 외쳤다. 천둥이 진동하듯이 "으앙" 소리를 질렀다. 모든 양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 놀라서 고개를 바닥으로 파묻었다. 길동이도 양처럼 움츠렸다. 엄마가 옆에서 "으헝"하고 소리쳤다. 길동이는 눈을 뜨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나하고 많이 닮은 짐승의 목소리였다. 길동이가 자기도 소리쳐 봤다. 산천의 요동소리 같았다.

그 때 길동이는 자기가 양이 아니라 사자임을 깨달았다. 사자 아빠는 양우리 담장을 휙 뛰어넘었다. 담장은 30센티 높이도 안 되었다. 엄마 사자도 휙 뛰어넘으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동이도 그 양우리 담을 뛰었다.

길동이가 아빠의 외치는 소리에 자기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양떼와 함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도 교수님들의 외침에 관해 깨달을 때에만 양우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평화' 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 중의 하나

코소보 내전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군 평화유지군이 코소보로 들어왔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전쟁의 상흔이 잊혀지기도 전에 미군평화군에 의한 상처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코소보의 상황을 알아보고 국제법으로 어떻게 위배되는지 우리학교 이장희(법대·국제법)교수를 만나보았다.

· 편집자주

코소보에 미군 평화유지군이 진입할 당시가 떠오른다. 주민들은 연도에 죽 늘어서서 진입하는 미군을 향해 "미국" "감사합니다" 등을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한 주민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평화유지군이)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미군 평화유지군의 지위를 맡은 존 크래독 준장 역시 "미군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은 평화협정에 따른 1단계 작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미국 주도하의 평화'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1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코소보에 평화는 어디쯤 와있는가.

평화유지군이 들어왔으니 살았다?

지난 18일 미육군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에 관한 일단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소보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 육군 공수부대원들이 현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을 하는 등 각종 비행을 자짐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월 프랭크 롱이(Frank Ronghi, 35) 미 육군 하사가 11살 난 알바니아계 코소보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면서다. 당시 이 사건은 NATO 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주둔한 이래 이런 중범죄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라며 크게 이슈화되었다. 군은 곧바로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적있을 밝혔고, 8개월만인 최근에야 약 8백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내용이 일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장교는 사병에게 민간인의 복부를 가격하도록 명령하는가 하면, 민간인의 뒷머리에 총을 겨눈 채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몇이 하사를 포함, 몇몇 군인들은 코소보 여성의 머리카락과 양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겨울에는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체 하며 코소보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놀이를 만들어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채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행위로 강등과 감봉 등 처벌을 받은 군인들이 장교 4명과 사병 5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사가 일개 소대에 국한된 것을 감안하면 그 밖에도 숱한 비행사례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보고서에서는 현지에 파견된 병사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거의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평화유지보다는 전투수행 훈련만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평화유지라는 임무를 위해 정신교육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례로 "Shoot'em in the face"라는 부대 슬로건을 들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슬로건으로 인해 군인들이 지역주민들을 향해 정면으로 총을 들이대거나 플래시를 비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여러나라들에서 거의 예외없이 숱한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가를 설명해준다.

미군, 민간인에게 각종 비행 저질러

우리는 그동안 미국에 의해 소위 '평화'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전쟁'을 보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평화 유지의 명목으로 자행되는 숱한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7월 오키나와에서는 술에 취한 미군이 문이 열려진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있던 14세 여중생의 몸에 반라상태로 올라타 성추행을 하려다 붙잡힌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클럽 여종업원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가 하면,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사건으로 온국민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평화와 안보의 이름으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대개 해외에 배치되는 미군들이 학력이 낮고, 짊이 낮다는 이유로 '미군놈들은 원래 그런놈'이라는 식의 개인적 품성 및 자질론으로 돌린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 못지않게 매우 잔인한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라고 개인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갖는 일반적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서는 적을 맞대어, 스스로의 공포를 억제하고 목표에 대한 개인이 갖는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되어진다.

앞의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공격적인 슬로건 등이 좋은 예이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2사단의 표어가 'Live by Chance, Love by Choice, Kill by Profession'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매우 잔인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여기에 타국에 배치되는 경우 문화적 차이나 인종적, 민족적 차별의식이 더해져 자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일들도 종종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위는 코소보 국민들이 미군에 대한 분노로 성조기를 태우고 있다.

구체적 의미의 '인간안보' 선행되어야

이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코소보 소녀 강간, 살인사건에 관해 한 이웃주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있다. "그들(평화유지군)이 이런 짓을 할 비에야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이곳에 머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단순한 종전(終戰)의 의미를 넘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적극적 의미의 평화로, 추상적 의미의 '국가안보'에서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구체적 의미의 '인간안보'로 전통적 개념의 변화부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소 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처장)

만나보기 - 미군의 코소보 만행 관련 우리학교 이장희(국제법)교수를 만나

코소보미군만행이 국제법상 어떻게 위배되는가?

코소보에 미군은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들어갔다. 평화유지군은 내전·내란지역에 파견되어 질서 유지, 분쟁 당사자간의 완충 역할, 휴전 감시, 합법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 관리 등 순수한 평화 유지 활동만 하게 되어있다. 단지 중립적인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코소보평화유지군(KFOR)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국제법을 어긴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군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엔군이 국지적인 분쟁의 인도적인 구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을 PKO(Peace Keeping Operation)라 한다.

유엔군은 회원국과 안전보장이사회국이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이전의 냉전시대에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소련의 불합의로 유엔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유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PKO활동을 벌이기 위해 미군을 분쟁지역 곳곳에 파견했다. 하지만 이제는 냉전시기가 끝났기에 아직도 미군이 세계분쟁 해결에 선두로 나서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미군이 유엔헌장인 국제평화와 인권 보장을 추구한다면 미군주둔으로 세계분쟁이 해결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반대운동도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한미행정협정(SOFA)은 1953년 냉전시대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안에 수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미군의 허락이 있어야만 반환 및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5조에서는 이 조약을 무기한으로 명시되어 있고 파기하려고 할 경우에 1년전에 통고하기로 되어있다. 이는 결국 양자택일로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필리핀과 일본은 각각 25년, 10년씩 조약개정을 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언뜻보기 몇해전부터 기지협상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SOFA조항은 불평등을 지나 굴욕적이다. 따라서 SOFA개정없이는 미국에 대한 정당한 우리의 권리는 찾을 수 없다.

국제부

국제단신

백악관 앞 비에케스 섬 주민들과 'SOFA개정' 시위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집회가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약 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6개월 전부터 백악관 앞에서 농성을 해 온 비에케스 시위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높이 흔들며 비에케스 섬 미군기지철폐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 집회에서는 지난 21일 출국하여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워싱턴과 뉴욕 등을 방문할 예정인 '블랑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방미 대표단도 참여해 매한리폭격장 전면 철폐와 소파협정 전면개정 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기도 했다.

프라하, 반세계화 시위대 집중

프라하에서 지난 19일부터 본격 행사를 시작, 오는 26일 공식 개막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를 위해 전세계 경제지도자 1만8천명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다 2만여명의 반 세계화 시위대가 함께 모여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회의를 무산시킨 뒤에 열리는 행사이기에 프라하에서 체코는 전체 경찰병력 4분의 1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군대도 대기시켜 놓은 상태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필리핀 군기지 산업 폐기물 치워야

최근 미 로만 카톨릭 주교들은 미 의회에서 편지와 함께 첨부자료를 보내 현재 폐쇄된 올로가포시의 수빅 해군 기지와 엔젤스의 클락 공군기지에 남아있는 유독 물질들이 깨끗이 청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군사 폐기물로 20명의 어린이와 8명의 성인들이 사망했다면서 최대한 1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교들은 "미군이 기지를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연료들과 각종 화학 물질들이 필리핀 국토와 식수원으로 스며들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폐기물 방치를 반대했다.

-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 -

로키움

아이러니의 주인공

오스트레일리아 하면 떠오르는 동물인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Aborigine)과 함께 몇 만년동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지켜온 주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축구대표팀 별칭이 사카루(Soccerroo), 럭비대표팀 별칭이 왈라비(Wallaby)라 불리울 만큼 캥거루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동물임에 틀림없다. 이 캥거루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770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항해도중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인 지금의 "쿡타운" 근처에 상륙했다. 쿡 선장은 물과 과일을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던 중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을 발견했다. 앞발은 짧고 뒷다리와 꼬리가 긴 이상한 동물이 어설프게 껑충껑충 뛰어 가는 것을 본 것이다. 그는 이곳 원주민에게 손짓 발짓으로 그 동물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원주민들은 캥거루라고 대답했다. 이 캥거루는 원주민들의 토속어로 "나도 모른다"는 뜻이었는데 그만 이 동물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차에다 큼지막한 범퍼를 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캥거루때문이다. 야간 운전 중에 차의 전조등을 보고 이 동물이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지여행을 하다보면 도로 주변에 캥거루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캥거루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정이 있는 반면 스테이크나 햄버거, 수프등 식용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캥거루 고기는 지방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아주 적고 콜레스테롤 치수도 낮아서 세계에서 다이어트식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주는 30년 전부터 캥거루고기를 수출해 왔으나 호주 내에서도 지난 93년에서야 식품으로 승인됐고 연간 국내 소비도 200t 미만에 불과하지만 유럽국가 중엔 네델란드를 비롯 벨기에,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등 각국에서 점차 수입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역사와 함께 한 캥거루는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볼거리 제공뿐만아니라 먹거리까지 제공하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

신봉섭
(외국학센터 연구원/교양학부 강사)

SK주식회사 2000 환경경영대상 수상
: 에너지 부문 대상

SK주식회사는 에너지·화학 기업입니다.

한·러 경제협정의 원동력으로, 풍요로운 생활의 주춧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에너지·화학 - SK주식회사는 1962년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로 설립된 이래, 38년째 그 역사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하루 8만 배럴의 원유정제시설, 국내 1위인 36%의 휘발유 시장 점유율, 국내 수요량의 47%가 넘는 LPG공급, 12개국 28개 공구에서의 유전개발 등 에너지사업과 연간 73만톤 규모의 에틸렌 분해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공정에서 연간 433만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해는 화학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종합 에너지·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SK주식회사는 고객 여러분께서 보다 발전되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K주식회사는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수많은 미래산업 중에서도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생명공학 - SK주식회사는 정밀화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덕기술원, 미국 뉴저지에 리서치 센터와 의약개발 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99년에는 저세대 무용중 치료제 및 간질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도 생명공학, 신약 및 의약품기제 연구개발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K주식회사는 인터넷 기업입니다.

전세계 네트워크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는 인터넷 - SK주식회사는 기업·제품과 고객을 연결하는 홈페이지인 skcorp.com, enclean.com, skzic.com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브사이트인 okcashbag.com, 중고차 전문 쇼핑몰 encar.com 등 e-business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SK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정보와 서비스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SK 주식회사
www.skcorp.com

DJ, 교육공황 예고하는 파열음을 멈춰라!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과 공교육의 위기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임기응변식 정책이다

EI(세계교원노조연맹)와 PSI(세계공공부문노조연맹)는 2000년을 세계 공교육 위기의 해로 선포했다. 이는 거대 자본과 다국적 회사들에 의해 전세계 11억 명의 학생들과 5천만 명의 교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현시점에서 '평등성·보편성·대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기도 전에 '수월성·효율성·개별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매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해 선진국가의 외형을 손쉽게 짧은 시간에 흡수하고자 하는 김대중정권의 임기응변식 정책기조와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한 교육적 이데올로기의 표출은 각기의 계층과 계급의 욕구를 학교교육에 다양한 형태로 이입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공교육 해체 정당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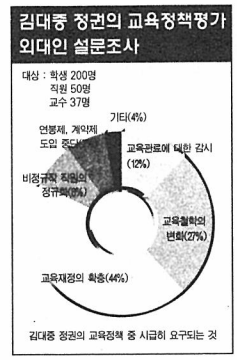
다양성, 학생중심, 참의성, 수월성, 개별성이라는 이름의 '자유주의적' 요소는 기득권 층의 욕구를 적당히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획일주의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인식을 혼돈 시키는 역할로 설정된 면이 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는 수요자 중심, 경쟁성, 효율성, 수행평가 등의 용어로 포장되어 BK21, 국립대 민영화, 교육개방, 7차교육과정 도입 등 공교육 해체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뒷받침되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 일류국가, 정보 인프라의 극대화, 교육인력개발 등의 표어를 담은 '국가주의적' 요소는 국민과 아이들에게 편향적인 이념을 각인시키고 보수계층의 비위를 맞추는 용도로 전용된 측면이 있고 이제는 교육부종리제와 맞물려 있으며, '신관료주의적' 측면에서는 교사직급의 다단계화(수석교사제 등), 학교간 서열화 유지, 입시교육의 공고화, 교원의 평가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교육계의 획일주의를 편법으로 유지시키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학교는 여러 이데올로기가 혼재된 상태 속에서 정치와 관료, 거대 자본과 기업, 심지어 대안교육과 탈학교 현상까지 온갖 욕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급속한 속도로 정체성을 상실했고, 학교현장과 교육계는 여전히 '능력보다는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업일수와 주당 수업시수', '열악한 학교시설과 모자라는 교원 법정정원', '대학서열화와 내신성적'에 질식 당해 해체의 길로 들어서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두환 정권 이래로 지금까지 '교육시책'과 '교육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대표적인 얼굴 마담 역할을 해왔던 이돈희를 교육부장관으로 발탁했다는 점은 김대중 정권이 교육을 통일정책과 경제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기조를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5.31 교육개혁을 계속 패러디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나마 빈약한 교육재정을 확충할 생각은 않고 공교육을 민간재로 돌려 제로 섬 게임으로 몰고가고자 하는 위험한 도박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민영화 계획 등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BK21과 추진되다가 벽에 부딪힌 교·사대 통폐합 정책에 비추어 검증해 볼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빅딜되어야 할 대상은 교육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임을 금새 알 수 있다.

> "김대중 정권은 5. 31 교육개혁을 패러디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나마 빈약한 교육재정을 확충할 생각을 않고… 논리의 핵심은 '학교는 민간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라 교원과 학생을 시장원리에 경쟁하게 만들고 생산성 향상에 매진시키는 것으로 귀착된다"

교육재정 하락, DJ교육정책이 허상임을 단적으로 증명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1997년 GNP 5%에서 현재 GNP 4.2%로 하락하여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으며, 금년 정기예산 반영에서는 4.1%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경악한 전국교직원노조 지도부는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을 점거하고 강력히 항의하는 등 교육공황을 예고하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개혁 실패는 사실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논리의 핵심은 오히려 '학교는 민간재'라는 그릇된 의식에 있다. 이는 교원과 학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하고 생산성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연간 1조4천억원의 돈이 아까우니까 '자립형 사립'을 만들어 교육비를 민간재원에 부담시키고(일각에서는 공교육에 투자하는 돈도 아까우니까 공립학교도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론이 제시됨), 연간 7천억원이면 실현할 수 있는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조차 효율성을 내세워 교육부가 평가하여 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체제로 변질시키고, 조기유학가는 상류층의 욕구를 한 미투자협정과 국제협력에 따라 내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 학교' 개방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상, 평준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부속 66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경쟁체제인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특례입학도 확대 허용하고 기부금 입학을 전제하고 내신상 특혜를 주는 등 각종 보너스를 덤으로 얹어주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의 부가가치는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입시경쟁'으로 이어진다. 학교의 설립 취지와 학교운영의 목적이 모순되고, 교육과정의 개혁, 학교자치의 포기 등 뻔한 그림은 김대중의 정부의 교육정책의 허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 중 시급히 요구되는 것

공동체성 추구,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교육분열의 모습 되찾아야

교육과 학교의 해체 현상은 지금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을 '널리 볼 줄 아는' 공동체성에 들 것이냐 점수 중심의 '잘 할 줄 아는' 수월성에 들 것이냐는 '선택'의 요구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잘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갈라놓고 세분화 할 것이냐, 잘 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협력 학습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게 할 것이냐, 부실한 공교육을 기초부터 다져가며 그 숨통을 살리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이왕 맡하는 것 시장에 맡겨 이에 민간재로 돌리느냐, 무너져 가는 대학을 추스려 일으켜 세울 것이냐 아니면 소멸시켜서 민영화 할 것이냐 등의 문제에 대해 고통스런 선택을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의 소중한 교육을 김대중 정권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분야에서조차 소수의 졸부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도록 교육정책을 개악하고 있는 DJ정권은 피땀흘려 DJ를 당선시킨 서민들에게 '트로이의 목마'로 다가서고 있다.

김대유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외대인 설문조사 분석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금)부터 25일(월)까지 양 배움터 학생 200명, 직원 50명, 교수 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교육정책 중 가장 잘 된 것을 꼽으라는 1번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 %가 '없다'라고 대답했으며, 학생(49.5 %), 직원(43 %), 교수(35 %) 순으로 정책에 대한 불만도가 높았다. 한편, 학생과 직원은 각각 12.6 %, 16 %로 '연봉제, 계약제의 도입'을 2순위로 잘 시행된 정책으로 꼽아 그 동안 교수사회의 연구 분위기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가장 문제가 많은 정책을 묻는 질문에 두뇌한국21(BK21)이라고 답한 경우가 학생(33 %), 직원(34 %), 교수(32 %) 모두 가장 높은 쿨로 나타났는데, 이유로는 대부분이 △대학간의 서열화 조장 △부익부 빈익빈 정책 등을 답했다. 이는 재단의 수익구조 자체가 안정하지 못한 우리학교 사정을 응답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 직원, 교수들이 두 번째로 많이 꼽은 것들을 살펴보면, 각각 '등록금 정책', '입시직 고용의 증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가 각각의 교육주체들에게 생존권적인·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2번 질문에서 '모집단위 광역화정책'을 꼽은 학생들이 17.3 %, 교수들이 16 %로 학부제 문제가 학생, 교수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등록금 정책'이 학생 23.3 %, 직원 14 %로 교육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순위로 교육재정의 확충을, 2순위로 교육철학의 변화를 꼽았다. 이외에도 대학의 자율성 강화, 입시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이 있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이 주체들에게서 외면 받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철학의 변화(신자유주의 또는 시장주의 논리)를 요구하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경쟁논리보다는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를 바라고 있음도 알게됐다.

박수웅 기자 soma-j@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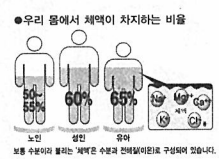
동아 오츠카
www.donga-otsuka.co.kr

...부족할 때 마신다고
부족한 게 채워질까?

전해질이 채워지지 않는 한 갈증은 계속됩니다.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가까운 순수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일할 때, 운동할 때, 목욕할 때, 공부할 때, 잠잘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의 체액은 끊임없이 빠져 나갑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체액이 줄고 있음을 알리는 위험신호-
위험신호가 오기 전에 체액과 비슷한 수분과 전해질로 보충해 주세요.
체액과 전해질 성분이 거의 같은 순수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단순히 수분만 대충 채우고마는 물이나 음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몸이 진정 원하는 건 오직 포카리스웨트 뿐입니다.

●우리 몸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



보통 수분이라 불리는 '체액'은 수분과 전해질(이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칼리성·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

김대중 정권 교육정책 2년반 평가

"등록금 인상, 공적성격 교육을 사적선택의 교육으로 왜곡시키는 것"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박인옥씨

2002년 사립대학 등록금이 10%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에 따라 최근 사립대학 등록금이 동결되어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을 받아온 것이 현실적도 타당성을 갖지만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의과정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해서 오히려 온갖 비리와 은폐된 행정조치들이 불신을 자초했다.

우선적으로 대학은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요구를 선행해야 한다. 더 이상 등록금이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대학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와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함께 참여기는 교육시민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 외에 초·중·고등학교 상황은 어떠한지요

중학교 의무교육실시를 요구하지만 초등학교도 완전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학교는 언제 의무교육을 시행할지 조차 미지수다. 중·고등학교의 70%가 사립학교인은 의무교육을 통해 농어촌 소외지역 학생과 교육받을 기회를 잃고 있는 학생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교육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음에도 끊임없이 사학의 자율성을 운운하며 등록금 자율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재정과 관련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족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교육재정 투자는 단기적인 투자를 통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한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부실 금융권에 투자하여 10년 300만원이 넘는 국민의 부담금을 환산시키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까지 국민의 선택권 확보를 이유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언제까지 국민이 묵과할 것인가.

또 김대중 정권은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발미로 학부모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의 계획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올바른 이해와 편성, 집행 등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교육시민단체의 모임을 올해 하반기에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재정확보는 교육부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학부모, 교수, 학생 등이 챙겨 각 주체의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강한 요구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공성 확보 의지, 부패사학의 비리척결, 교육재정의 투명성, 민주적 운영과정에 대한 교육주체의 참여 등이 절실하다.

대학부

"사립학교법 개정하지 않고 연봉 · 계약제 실시되면 재단 족벌경영체제 기승한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우리학교 김태정(일본어)교수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비판적하는는 평가를 못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IMF사태 이후 교육의 특수성은 고려 없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교육에 그대로 도입해 실효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신자식 논의처럼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기초과학이나 인문과학 등의 학문은 고사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구분 못하고 있다. 장관의 도덕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교육부 스스로는 개혁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교사 퇴출 등을 통해 주체의 문제를 객체의 문제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 정권의 임기 2년 반 동안 교수사회에서의 변화와 그 문제점은

연봉제와 계약제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객관적 기준으로 교수들의 연구를 평가해 임금과 연결지으려한다.

이것은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나타난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신분안정이 되어야만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다 대학의 조선어학과 어느 교수는 25년 동안의 연구 끝에 사전을 편찬해 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00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연봉제, 계약제는 시장논리만으로 교수사회의 경쟁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연봉제와 계약제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현행 사립학교법 안에서 실시될 경우 그 문제가 크게 들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수와 재단과의 세력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이 개악되면서 재단임원자격요건이 삭제되고, 관선이사 임기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김덕중씨가 장관을 재임 시에는 '사학주인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것을 상펴 본다면 사학재단의 족벌경영체제가 기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교수가 재임용시 엄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불안요소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사회의 불안한 요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재단과의 세력균형을 위해 현재 임의기구인 교수협의회가 의결기구로 승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힘의 세력균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비민주적인 교육관계법령들에 대한 민주적 재개정이 필요하다.

박수용 기자 soma-j@hanmail.net

"비정규직, 임금절감만을 노린 변형된 임금착취다"

대학노조 우리학교 지부장 심재영씨

김대중 교육정책 중 직원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조조정이다. 우리학교도 각 부서 통폐합으로 직원의 수를 줄이고 있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각부서 통폐합이 학교 경영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책임있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학교측이 통폐합으로 줄어든 임정직도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된다.

비정규직은 1년을 기한으로 계약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책임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도 보장되는데 비정규직은 모든 것이 이와 반대된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도 대항하지 못하며 임금도 사환보다 적다. 이렇듯 대우나 처우가 열악한데도 학교측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생각하면서 임금절감만을 노린다. 한마디로 변형된 임금착취다.

현재 우리학교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전체직원의 15%에 달하며 총60%여명 정도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학교 전체직원이 비정규직으로 바뀔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내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얼마전 롯데호텔 노동자들이 정권으로부터 심하게 탄압당했는데 이들이 주장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것이었다. IMF가 끝났다면서 고용안정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부에 대항한 것이다.

일부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도 졸업하면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것이 뻔하다. 앞게 모르게 다 똑같은 피해자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이 어떠하다고 보는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교육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김대중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은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치 않다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다. 순수,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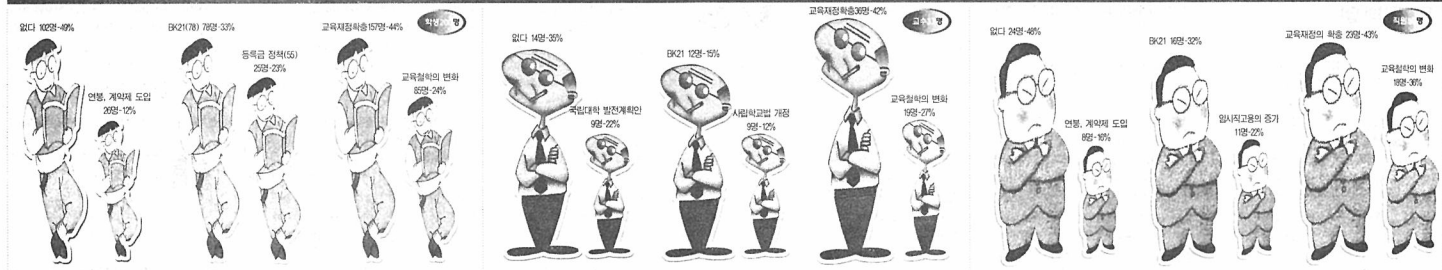
앞으로 직원들이 교수와 학생들의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서 교수로 하여금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교수, 직원 학생들의 요구를 위반하는 교육정책들이 상당하데 무엇보다 대대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뿐이다.

우혜나 기자mimo329@hanmail.net

김대중 정권 교육정책 평가 / 우리학교 구성원별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가능)



허허마당 생활글

우리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 논란

통신문화 정착인가 표현의 억압인가

학교 당국 지난 7월 부터 실시… 비방글 확연히 줄어 · 인터넷 운영위원회 학생참여 가능케 해야

네트워크 시대에는 미디어 이용자간,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능동적인 주체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즉, 네트워크 시대에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사이버공론장이 형성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홈페이지(www.hufs.ac.kr) 게시판이 지난 7월 실명제로 전환한 이래 아직까지도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실명제로 바뀐 이후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려면 재학생은 학번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문·일반인은 정해진 신상명세를 기입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계속되는 욕설, 비방글과 흠리건들의 방문에 대책을 강구하다 작년 10월경 인터넷운영위원회를 발족, 실명제로 전환할 것을 논의해 왔다.

그러다 다른 학교 사례를 검토, 기술력 확보로 드디어 지난 7월 10일 실명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영향으로는 일단 게시글이 하루 평균 20여건에서 5~6건으로 1/4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비방글, 흘리건들의 글 또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용자들은 이렇게 글이 줄어든 점을 실명명기에 따른 부담감으로 보고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익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글이 삭제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게시글에 대한 삭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다. 인터넷 간사 임지은양은 "욕설로 가득한 글 외에 모든 글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한다

현재 글을 삭제,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인터넷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위 부총장)는 학생처장, 연구협력처장 등 보직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안을 집행하는 '인터넷간사'는 학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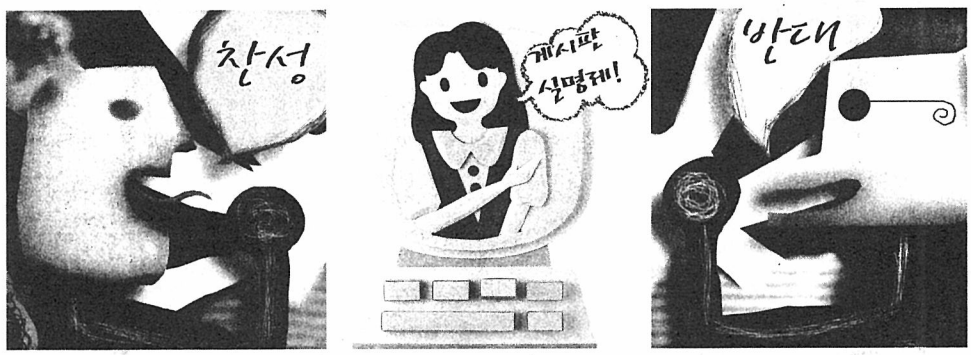
이에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이루려면 학생대표의 참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운영위원회 실무위원 김상열(스칸디나비아어)교수는 "가능한 대안이라고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또한 실명제의 부담으로서 느껴지는 점을 고려, 실명대신 자신이 지정한 아이디를 쓰는 방안 이나 아이피 추적 등을 방지하는안 등도 실명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가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논쟁은 언제나 뜨겁다. 사이버상의 권리를 연구해 온 통신연대는 '사이버 권리백서(1998)'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증명되지 않은 검열의 효과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책임있는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당국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문화부 oedae98@hanmail.net



게시판 실명제 찬성

나는 이번 게시판 실명제와 또한 로그인시 개인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게시판 운영에 찬성한다. 일반적으로 게시판이 이렇게 변한 이후에 하루에 올라오는 글이 수십 수백개에서 한페이지도 되지않는 아주 적은(?) 분량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학우들의 견해인 글의 수가 많이 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견해와 의견을 공개하는 데서 자신의 실명을 올려야 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들 게시판문화의 후진성에 실망이라는 것이다. 말발이나 멋진 단어 몇개로 마치 자신의 의견이 진리인양 온갖 감정과 과격하고 선동적인 언어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나서는 마치 우리들 자신이 어느 신문사나 잡지사의 고발담당 기자나 논설위원이 된것인 양 스스로 만족하고 자위해 오던 것은 아닐까?

물론 대다수의 이용자들이란 말은 아니다.

참고로 나도 이글을 쓰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을 싣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 바로 이런게 적어도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마구잡이로 털어놓고 또는 누굴 비방하고 헐뜯는 식의 의견표명과는 다른 점일 것이다.

게시판이란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또 그런 것이 모여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따르지 않는 의견이나 비방은 그것 자체가 옹졸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울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이마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나 헛(?) 소리 같은 것이 올라오면 '이거 건수다싶어서... ' 모두들 신나게(?) 돌팔매 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모습은 숨기고 남의 뒤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를 스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사이버문화수준이 그다지 고차원적인 여론문화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영환 교수
〈경영정보〉

VS

게시판 실명제 반대

무척 오랜만에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을 보고 놀랐다. 예전에 학교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사항 작지만 필요한 의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던 게시판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십개씩 개진되던 의견들이 하루에 1-2개에 불과하다. 이는 단지 게시판이 등록 실명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등록제로의 전환이 필요했는지가 의문이다. 여지껏 흘리건, 음해성 의견 등등이 있기는 했지만, 기껏해야 게시판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피해가 심각했던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지금의 게시판의 등록 실명의 기능은 외대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외부의 사람들도 글을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실명을 쓰면서까지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등록제를 통해서 외부인을 차단해 놓고는 다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는 글을 올릴 수 없게 한 것은 사실상 비판이나 비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나 특정단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설령 정당한 비판이라도 비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도 실명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개인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라는 내용의 문제다.

그리고 대학생 정도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이 있으며 이는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물론 학교당국에서 등록 실명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게시판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언로가 막히는 현재 상황이라면, 필요한 것은 성숙하고 신중한 게시판 문화양성이 목적이지, 학교당국이나 학생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언로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

전대근

생활바꿈이

9 · 10월은
문화행사의 달!

세민전, 미니즘 학교, 모의UN, 동아리 페스티벌… 우와~!
9. 10월 배움터는 갖가지 문화, 학술 행사로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오후 다섯시 땡! 하면 집으로 달려가는 외대인은 없겠죠? 행사를 만들며 가을날 굵은 땀방울도 흘려보고, 박수치며 관람하는 기쁨도 맛보아 봐요.

새활시평

세상에 단 한번 절실하게 '절규' 하라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한번은 절규하게 되고 그 절규가 진실할 때 비로소 '문학'이 되며 진실한 그것은 역사를 만든다" 참문들으로 봄햇살이 들어오는 낡은 문리대 강의동,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강의를 했을 이제는 고인이 된 한 노작가를 떠올려본다.

지난 9월 14일, 태풍 사오미의 영향으로 전국에 소나기가 퍼붓던 그 날, 작가 황순원이 타계했다. 교과서에 밑줄을 쳐가며 읽었던 소설 '소나기'에서, 별을 동경하던 소년의 꿈을 그린 '별'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고인은 소설속에서 보여지는 간결한 문체처럼 정갈한 삶을 살다 갔다.

'작가는 작품으로서 이야기 할 뿐'이라며 일체의 외부활동이나 잡문쓰기를 거부해온 고인은 일제시대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글 작품을 쓰기도 했다. 생전 정부에서 주는 은관문화훈장도 사양해 말많은 참새언론들이 입방아를 찧기도 했지만 조용히 '받고 싶지 않다"고 이유를 밝힐 뿐이었다.

작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솔직히 내보일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학이 된다는 고인의 이야기는 과대포장과 인스턴트 도서에 갈등여진 우리에게 많은 교훈점을 시사해준다.

당장 베스트 셀러로 오른 책들을 살펴보아도 그렇다. '부자아빠의 투자가이드'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리라'(교보문고 집계 9월 셋째주 베스트셀러)등 비문학계열의 실리주의를 앞세운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돈을 많이 버는 법, 세련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 등 이른바 '처세술'을 다루는 책들이 점점 순수문학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의 존재근거는 순수성과 올곧은 시대정신일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급급없이 한글소설을 써냈던 고인의 정신과 같은 시대성 말이다.

황순원 작가의 제자이자 문인인 조세희 씨는 "역사에 '생략'이 있을 수 없듯 문학에도 '생략'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꼿꼿한 학처럼 50여년간 자신만의 순수 작품세계를 지켜온 황순원 작가.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편안히 잠들었을 그의 입종을 떠올려 보며 한 자 적어본다. 강직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던 순수성은 고인이 뿌린 씨앗들이 잘 지켜낼 거라고.

문화부장 oedae98@hanmail.net

알림

본보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는 지면관계상 한 주 쉽니다.

외대학보

문화마당

새책

피에르 쌍소
현대신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신속한 동작, 재빠른 반응, 날씬한 외모...현대사회에서는 끝없이 '빠르고 날카로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일쑤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 피에르 상소는 단호히 느림이 존재하는 영역'을 선택하기로 했다. 저자는 책에서 느림에 대해 '부드럽고 우아하고 배려깊은 삶의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한가로이 거닐기, 듣기, 꿈꾸기, 기다리기, 글쓰기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느림과 신속함이 발이는 공방전속에서 이론적인 근거를 제기하기도 한다. 저자의 독특한 '느림의 철학' 처럼 편안히 읽을 수 있는 수필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김중종 지음
지식산업사 10,000원

옛말로 풀어 읽은 우리 이름 우리 문화

지난 2일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 김중종씨가 20여년동안 '우리말'을 연구한 책을 발간했다. 1961년 간첩으로 남파됐다 체포된 후 1989년까지 28년 동안 복역했던 김중종(74)씨. 이 책은 그가 수십년간 연구한 우리 말글의 어원을 찾아 연결고리를 밝히고 있다. '서울'에서 울은 '우리'(봉우리)에서 나왔고, '서'는 '올라서다'에서 따온 것으로 '봉우리에 올라서다'는 의미, '아버지'에서 '지'는 옛 공동체 생활에서 가부장적 통제자를 높여 부르는 말인 '줘'가 축화되어 자리잡았다고 한다. '한자 밑에 숨은 우리말의 뜻을 알면 고대역사에 대해 애정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기획의도다. 이번 책으로 북에서 화위를 받겠다는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남한의 지식산업사를 통해 책을 낼 계획이다.

공연

한국 천년의 춤 - 신라의 빛

국립무용단 제 80회 정기공연 '한국 천년의 춤 Ⅳ 신라의 빛'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열린다. 신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을 통해 옛 선현들의 정신세계를 춤으로 표현한 이 극은 1부 춤으로 여는 새벽, 2부 토함산의 빛으로 나뉜다. 신라인의 사랑, 화랑의 무예, 비천상의 여인들이 성덕대왕신종을 매개로 펼쳐진다.

출연인원 100명이 넘는 대형무대, 타악의 명인 김대환과 젊은 국악인 원일이 호흡을 맞춰 이뤄낸 활달한 타악연주가 이 공연의 또다른 감상 포인트다.

시간-평일 오후 7시 30분,주말 4시
장소-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문의-02-2274-3507~8

인터넷 나들이

www.chungchun.net

최근 폭력장 문제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메향리 폭력장 폐쇄집회, 비전향장기수 송환행사, 단일사건 사상 최대구속자를 낳았던 96년 연세대 범민족대회…. 이 모든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인터넷방송국이 탄생했다. 지난 5월 한총련 출범식 당시 시험 방송을 시작으로 8월 정식 개국을 한 '청춘'은 '자본을 중심에 둔 상업방송의 벽을 뛰어넘어 인간중심의 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를 함께 한다.

정치, 문예, 실천 등의 각 마당으로 분류, 민중가요노래패의 공연이나 정치연설, 집회장면 등을 '골라'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방송의 특징이다. 또한 '역사마당' 부문에서는 예전의 집회나 통일행사 모습을 새롭게 편집, 진보진영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외대안에 세계를 지붕으로 집짓자

사건으로 본 세민전의 역사

1971년 세계민속예술제 탄생

세민제는 1970년대에 일린 '동남아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의 폭을 넓히고 명칭을 변경하여 개교 17주년 기념행사로 그 포문을 열었다. 세계각국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한편 친공학과의 어학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한 외국인들과의 유대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각국의 음악, 무용 등을 공연했다. 이후 본교 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가장 큰 행사로 자리매김해나갔다. 1975년에는 휴교령으로 행사가 중단되는 위기에 처한다. 4월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유신헌법 반대화투쟁과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집권는 33일간의 휴교령을 내렸다. 이로인해 대통령긴급조치로 75년과 76년 모두 개최되지 못했다.

1984년 세민제 반대시위로 세민제 중단

84년에는 여러문제점들을 안고 그해도 세민제가 부활하는 듯 했지만 행사준비기간이 중간고사와 겹쳐 참가자들의 유교인정문제등으로 다른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가 하면 학교 홍보에 그치는 향락적이라는 지적, 학과보조비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세민제 반대시위로까지 이어진다. 이후 1992년 부활 때까지 8년간 개최되지 못했다.

1992년 용인배움터 '세민제' 부활

행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열의, 열정은 학회나 각 과의 소모임을 통해 이어졌고 예술행사가 부족한 용인배움터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세민제가 부활했다.

외대는 더 이상 어문계열만의 학교가 아니므로 94년 품물음식전과 96년 세계영화제가 더해져 그내용과 고민들이 풍성해졌다. 또한 94년 김일성서거에 맞물려 각 대학에 심각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민국기에 북한 인공기가 있다는 이유로 세민전 위원장이 수배를 받기도 했다.

2000년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이라는 진짜 이름갖기

기존의 행사와 더불어 비어문계열의 참여와 예술적인 측면과 학술적이 측면을 담보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98년도에도 학술제가 준비되었었지만 준비부족으로 치루지 못했다. 올해에는 '왕산학술제(가칭)'를 반드시 성사시켜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의 제대로 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2000년 세민전 들여다 보기

다섯돌을 맞이하게 되는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이번 세민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에 '학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학술제를 처음으로 시도한다. 세민전은 문화뿐아니라 학술적 역량을 한자리에 결집시키는 것으로 그 위상의 재고되기 시작했다. 곧 '세민전=어문계열의 민속공연'이라는 공연보여주기 식 축제의 한계를 넘어 비어문계열 외대 모든 구성원이 망라되는 학술축제의 의미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요구속에 98년 세민전에서도 기획준비가 되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세민전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장혁(인문·철학 93)군은 "학회활동이 많이 위축되면서 학술제 준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공연학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데 세민전 공연행사가 지금까지 한 몫을 했듯 세민전 학술제로 인해 학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한다.

둘째, 세민전의 백미 세계민속공연이 나열식이었던 기존의 형식을 탈피, 연결되는 내용으로 준비되었다는 점이다. "탄생, 성장, 사랑, 결혼, 전쟁, 죽음 등을 '인간의 삶'이라는 일상적인 주제로 모든 관객들이 공연을 보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공연연출자 이보나(정보산업공·컴퓨터공학 97)양이 말하는 기획의도이다. 공연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인간 삶의 탄생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속에 형성된 아름다운 축제의식이 2부 축제의 즐거움과 상반되는 혼란, 인간의 이기심으로 생겨나는 시기 알력과 싸움, 대립의 모습을 표현했고, 마지막 3부는 '새로운 희망'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인간사의 축제와 혼란을 극복하는 '대동의 장'이 이어진다.

셋째, 남북분단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여 청년학생으로서 도전정신을 충분히 살리고자하는 취지로 준비된 '자주교류'의 내용이다. 자주교류의 내용으로 평양외대와 세민전을 함께 하기위해 동일부에 북한주민접속신청서를 내기도 했었다. 이번 세민전속에서는 북한바로알기 선전거리, 북한 품물음식전, 북한영화상영회가 구성되었다. 특히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재구 박사, 이종석 소장과 함께 객관적 사상, 학문으로의 주체사상을 알아보고 논의해 보는 자리인 북한사상토론회도 학술제의 일환으로 열린다.

학내 영화제 (단편 영화제 포함) - 노천극장

날 짜		상영작품
9월 26일	19:30	Buena Uista Social Club(독일) 104분
27일	14:00	Nobody(일본) 100분
	16:00	Beautiful people(영국) 117분
	20:00	The Dinner game(프랑스) 81분
28일	14:00	단편영화제
	20:00	General chaos(미국 단편 애니메리션 모음) 70분

세계 영화제 - 정동 A&C극장

날 짜		상영작품
10월 3일	12:00	Gods & Mosters (미국) 105분
	14:00	Insomnia (노르웨이) 97분
	16:00	Nobody (일본) 100분
	18:00	황제와 암살자 (중국) 160분
4일	12:00	Red Dwarf (벨기에) 100분
	14:00	Shark Skin Nan and Peach Hip Girl (일본) 108분
	16:00	도시처녀 시집와요 (북한) 80분
	18:00	Beautiful People (영국) 117분
5일	12:00	패션의 공범자들 (체코) 80분
	14:00	The Dinner Game (프랑스) 81분
	16:00	General chaos (미국) 70분
	18:00	노래로 태양을 쏘다-상영후 좌담회 (한국)

왕산 학술제 - 북한 영화상영

날 짜		상영작품
10월 12일	12:00	우리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다
	13:30	도라지 꽃
	15:00	령리한 녀구리

세계 민속공연 - KBS홀

날 짜		공연내용
10월 6일	15:00	체코(쁠까), 인도(나쯔나), 루마니아(바다로 가자), 포어('Edchan'),
10월 7일	19:00	아랍(발리댄스), 영어(유지컬), 일본(그림자극), 독일(로엘라이), 중국(검무 및 깃발춤), 마인(사프리아), 헝가리(전통결혼식), 아프리카(kariburi), 서어(폴리밀고), 이태리(아르브니아), 노어(까로부쉬까)
10월 6일	19:00	아랍(발리댄스), 이태리(아르모니아), 독일(탄첸), 마인(Yapong),
10월 7일	15:00	영어(joyful jouful), 체코(쁠까), 일본(그림자극), 포어(cerveja), 폴란드(폴로네기즈), 중국(검무 및 깃발춤), 태국(쑹끄랍띰까오), 서어, 루마니아(호리), 아프리카(harambee), 헝가리(전통결혼식)

칭찬합시다- 세민전을 만든 사람들

▲ 이정인(동유럽 · 노어 98)

"제가 칭찬주인공이라구요?" 하며 놀라는 모습. 하지만 이내 싱글싱글 해졌다. 이정인양은 이번 세민전에서 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선전부장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며 아주 열성적으로 했다는 주위의 칭찬이 자자했다.

"영화선정하고 홍보하고 기획사와의 소통, 팜플렛 제작 등 말하고 나니 억울하게도 너무나 쉽게 느껴진다"며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일은 실무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라고 전한다.

하지만 세민전을 통해 정말 좋은 선후배를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고 전한다.

▲ 신용규
(정보산업공 · 전자통신공학 99)

"연습실력도 쌓고 학교클사에 참여하여 보람도 느끼고 싶었어요" 자발적으로 반주단 공개모집에 신청했다는 로그아웃회장 신용규군은 모든 과의 공연을악 연주를 연습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여유가 있어보였다. "처음 접해보는 음악들이어서 그 느낌들을 찾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각 과들의 음악들이 보통 늘 해오던 기요나 팝송만큼 익숙하고 재밌다"고 신군은 말한다. 연습공간이 없어 빈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연습했던 어려웠던 점, 특이한 악기대신 비슷한 소리를 내볼려고 노력했던 점 등 기억할 만한 추억이 많다는 그는 빨리 세민전공연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한다.

▲ 최문식(동유럽학 · 노어 99)

"연습, 여러 회의들 속에서 많이 참는 법을 배운것 같다. 이것이 세민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성과인 것 같다"고 전하는 노어과 출책점 최문석군은 사람들과 부딪치는 부분에서 자신이 성장했다고 전한다.

궁중, 농민, 군인 그리고 집단적인 군무로 표현되는 러시아 민속춤. 대륙적인 기질과 힘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 멋과 우아함 또한 느낄 수 있는 춤인 '까로부쉬까'. "많이 과격하고 힘이 필요한 춤이어서 어려웠지만 연습을 열심히 한 만큼 멋지게 하고 싶다"는 그는 함께 연습해온 학회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문화단신

서울

2주간 동아리 페스티벌 열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상상하는 젊음, 동아리의 힘!'이라는 기치아래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째주까지 2주간 동아리 페스티벌이 열린다.

'9, 10월에는 동아리 자체적으로 행사가 많은데 이 행사들을 하나의 주간으로 정해 전체 행사로 묶어서 모든 동아리가 함께 홍보하고 참여하고자 한다"며 동아리연합회 정책국장 민충기(사회 · 정외 97)군은 기획의도를 전한다.

9일 마지막주부터 각 동아리들의 자체 행사들을 시작으로 10일 5일(목) 각분과별로 준비한 부문마담, 민중가수 최도은씨에게 들어보는 민중운동사, 그리고 6일(금)에는 분과별체육대회와 폐막제로 그 흐름들을 진행한다.

특히 폐막제는 '2000년 인권선언! 젊음이여, 진실을 노래하라!(가안)'라는 이름아래 노동권, 여성권 등 각 분야별로 모든 동아리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참여한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명제아래 모두 동의하는 편이지만, 현실속에서 쉽게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것이 많다"며 민군은 이번 동아리페스티벌을 통해 동아리인들의 단합과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한다고 전했다.

여학생위원회 가을 페미니즘 학교

'2000년 가을 페미니즘 학교'가 여학생위원회의 준비로 9월 마지막주부터 5주동안 매주 금요일 생활도서관에서 열린다.

'외대여성학 학습풍토의 부재속에서 여성학을 대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여성학학습에서 여성운동까지의 진지한 논의를 가능케하고자 한다'는 점이 이번 페미니즘학교를 여는 취지이다.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간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사회 성문화, 섹스와 젠더, 여성 몸과 정체성 등 흥미있는 소주제가 준비되어 있다. (여학생위원회 961-4450)

용인

27일부터 동연제 열려

오는 27일(수)부터 29일(금) 삼일간 '가을의 전사 제2막'이라는 이름으로 동연제가 학생회관앞에서 열린다. 마음먹고 놀만한 행사가 많다는 게 이번 동연제를 준비한 동아리연합회의장 박영찬(동학 · 중국어 95)군의 설명.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수) 첫날에는 슬랩업, 외비가디의 공연과 락페스티벌이, 둘째날은 커플이벤트와 샌드위치 만들어먹기,무서운영화 야외상영회가 준비되었다. 마지막 29일(금)에는 합합공연과 나이트클럽이 열린다.

세민전과 겹쳐져 연행분과와 학술분과의 참여가 어려운점, 또한 행사의 내용적 풍성함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더 나은 나를

반쪽의 언어를 찾아서

아바이-〈2〉

석준이가 저녁에 견습공 청년과
지금은 공장 설비관리원인
옛기능공 아바이를 데리고
집에 오니 인해의 극장에서
남동무 하나와 녀동무 둘이 와 있었다.
- 북한소설 '벗' 중에서

아바이→ 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② 아프리카어과

여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움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가볼만한 곳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즐비한 거리인 대학로에 자리잡고 있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은 아프리카인들의 다양한 표현양식과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의 생명력을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두 개의 전시실과 카페, 기념품 숍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프리카 미술은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현대적 감각이 뛰어나서 이로인해 서양미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고, 마티스를 비롯한 블라크, 피카소 등 많은 현대서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차용하기도 했다.

전시실은 17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아프리카 300개국 700여 부족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장의 취임식에 사용되는 코뿔새 가면, 죽은 왕비를 추모하며 짐병을 막아주길 바라는 환기면, 부족의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세웠대는 부족피라미드, 보석함, 창, 화살, 여인좌상 등 정교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생활용품, 조각, 민속품 들이 전시되어있다. 카페에서는 탄자니아산 커피와 아프리카 토속음료인 '우지'를 맛 볼 수 있고 기념품 숍에서는 목조각, 악세사리 등의 아프리카 민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주 소: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3
한목빌딩 5, 6층
전 화:741-0436~7
이용시간:(화~금요일)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토 · 일, 공휴일)오전 11시
~오후 9시
입장료:1500원
교통편: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버스 3, 5-1, 8, 12, 20, 25, 222, 361번

지구촌민속박물관 특별기획전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흑인 민속탈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 일대기전, 아프리카 흑인 민속전.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 서울타워, 그곳에 매년 두 개의 대륙, 나라들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기획전이 열린다. "일제시대 우리와 처한 상황이 비슷했었던 흑인해방운동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삶을 조명하고, 고갱, 피카소 등 많은 19~20세기 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준 아프리카의 의식주, 통과의례, 원시신앙 등에 관한 독특한 흑귀 민속 유물의 전시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세계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전시과장 부동석씨는 이번 전시회의 의의를 전했다. 모로코, 남아공, 코트리부아르, 말리 등 여러 나라의 민속품, 조각상,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기후지역에 따라 집모양이 다른 점을 그대로 복원하여 주거형태의 의미와 그 부족의 문화를 함께 엿볼 수 있게 했다. 사헬지역의 토담집, 마사이족의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동을 발라 놓는 다는 이야기 등 아프리카인의 지혜를 느낄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구촌민속박물관 한켠에서는 각국 세계민속옷을 입고 있는 인형전, 애국지사들의 여러지팡이 등도 함께 전시되어 여러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1-3(남산 서울타워내)
전화:773-9590~1
특별전 기간:2000. 8. 10~ 12. 31
이용시간:오전 9시~ 오후 11시(연중무휴개관)
홈페이지: http://www.gvfm.org

볼만한 영화

파워 오브 원(The Power of One)

감독: 존 애빌스
배우: 스테픈 도르프, 모간 프리만, 아민 밀러 스탈
장르: 드라마

이 영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인종차별문제를 고발하는 영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하기 18년전인 1930년, 한 영국인 농장에서 시작된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PK는 독일계 백인들이 모여 있는 기술학교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영국인이라는 이유로 독일학생들에게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한다. 세월이 흘러 영국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간 PK는 독일계 백인인 닥에게서 인생의 참 의미를 습득하게 되고, 흑인 원주민 기엘 피트에게서 권투를 배우면서 국적과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 서로가 지향하는 비극적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후 PK는 흑인들에게 글자를 깨우쳐 주면서 백인들이 무지비하게 지행해왔던 인종차별을 고발하고 어느덧 투사로 변해간다는 줄거리로 한 성장소년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인종차별'이라는 화두를 소박하고 사실적으로 담았다. 또한 기계적인 조작을 거부하고 음악속의 휴머니티를 고집하는 음악인으로 명망이 높은 한스짐머의 영화 전반에 흐르는 배경음악도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듯 하다.

읽을거리

아프리카의 부족과문화/ 유종현/금관/15000원

외교관출신 르포작가이면서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강사를 지낸 유종현 교수가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 학술 입문서를 냈다 . 10여년간 직접 현지를 답사, 각 부족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담은 이 책은 우리에게 호기심과 신비에 얽힌 아프리카의 참모습을 소상히 밝혀준다. 부시맨, 피그미, 마사이, 투아레그, 줄루 등 각 부족별 구전신화, 전설, 시원제도, 신안 등 전통문화를 쉽게 풀이했으며 정확한 묘사에 집중했다. 또한 현지답사중 직접 촬영한 사진 120여점을 게재,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다.

나의 여행담

-아프리카를 여행한 권오능(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과 2학기)군을 만나...

"97년부터 98년까지 약 1년동안 남아공, 수아질랜드,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등 8개국을 육로로 돌아보았다. 여행을 좋아해서 또한 본격적인 대학원에서의 공부를 걸심하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과감히 떠났던 여행이었다. 아프리카의 매력은 정말 너무 많다. 인류태초의 고향인 그곳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이다. 아프리카인들은 순박하고 속도감이 느리지만 그래서 더욱 어유롭고 종요로와 보인다. 처음 떠날때는 짐을 잘못 싸서 너무 무거웠는데 여행하면서 몸무게와 짐무게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가 점점 늘어났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문제점과 대책

"한국, 전자통제 사회가 도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3일 입법 예고됐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 일컬어지는 이 법안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다운사건 때부터다. 당시 정통부는 "해킹 사건의 배후로 시민단체와 네티즌을 지목했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의한 진보넷 압수수색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진보넷, 안티조선 우리모두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은 경찰의 진보넷 수색과 정통부의 책임전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검열적 요소를 포함한 독소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제안이유를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 등으로 밝히고 있다. 법의 목적을 보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다. 하지만 통신질서확립법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철회운동으로 인해 정통부가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부분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언로를 차단통제할 독소조항이 포함된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칠 뿐이다.

둘째 '제4장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조항을 통해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 기준과 표시방법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가에 의한 정보등급표시제를 강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셋째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 대상화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인터넷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섯째,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이처럼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근간에 심각하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법적 틀제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율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의 산하 각종 위원회와 산하기관 강화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함으로써 정통부의 기득권 강화와 시민에 대한 통제를 높이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의 전국 PC방에 대한 IP제출요구와 수사 ▲행정자치부의 게시물삭제지침이 든 인터넷조례안 시달과 이에 근거한 성남시, 안양시, 양산시 등의 인터넷조례제정 움직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 ▲행자부의 전자정부기본법 제정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은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전자통제를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고 규정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이버 권리 선언
The Declaration of Cyberrights

▲ '위사진은 지난 98년 통신인들의 권리를 선언한 '사이버 권리선언' 전문이다

◀ 통신검열법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 20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변, 문화연대, 피스넷,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통부의 법안입법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이들 단체는 통신질서확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밝혔다.

▲첫째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회기 내에 이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 청원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 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해 존속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대학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네티즌이 참여하는 집회개최와 온라인 시위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 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정보의 소통과 유통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때, 청소년 보호와 사이버성폭력 방지를 운운하면서 시민사회와 네티즌에 대해 강력한 철권통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전자통제시도가 도래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인권과 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다양한 문화현상의 활성화, 인터넷 시민미디어의 발전을 통한 언론개혁수행 등 인터넷공간을 통해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통제와 규제논리로 막으려는 정부와 정통부 법안추진자들에게 인터넷의 열린 바다의 노를 맡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이유다. (2000/9/22)

이준희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장

불안한 JSA

O… 쉬리 이후 용왕에 대한 화두를 담은 JSA가 요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 임창난 홍보와 지지를 받은 쉬리에 비해 JSA는 그렇지 않은 점이 갑자기 궁금해진 클로니클자. 국방부장관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국방부 장관 왈.

"쉬리는 보고나니 마음이 편안히 쉬~리 했었는데... 이번엔 말이지, 왠지 모르게 불안하단 말이야..."

〈홍〉

O… 어느날 문득, 동문 행사를 한다는 프랭키드가 나붙더니 모회사 맥주, 바나나, 화장품, 가방등이 학교 곳곳에 쌓여있어 우리 크로니클자 잘나가는 동문 회사 상품 박람회장인 줄 알고 공짜에 신나 했는데 알고 보니 총동문 행사더라..

붕어빵에 붕어 없다더니 동문행사에 동문 없고 마구 두드려대는 난타 공연마저 없었더라면 속 터질뻔 했더이다.

〈꺽지〉

O…통신심의 '국가보안법' 통신질서 확립법에 반대하는 사이버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 이름을 도용해 결국 구속, 자유총연맹과 50여중 홈페이지 폐쇄에까지 이른 윤모씨 사건 등으로 1500만이 이용하는 인터넷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네티켓 지키면서 권리를 주장하자는 당연한 걸 왜 몰러~"

〈호〉.

O… 경의선 철도 복원을 위한 작업에 동원된 우리의 군인이자저씨들 사방에 깔려있는 '지뢰'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자 급히 뛰어간 우리 크로니클자에게 군인아저씨들 하는말

"여기 지뢰는 어떻게든 우리가 제거해 볼테니 크로니클자들은 '윌트리 캡송 엽기 YS지뢰'부터 제거해 주오"

〈홍수지〉

엽기 YS지뢰를 제거하라

학술 단신

27일 (수) 반아셈 설명회

'아셈(ASEM) 1020을 기억하라-시장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주제로 열리는 반아셈 설명회가 오는 27일(수) 6시 고려대학교 경영대 신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셈 2000년을 반대해야 함까-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시위를과 워싱턴의 반자본주의 시위 경험-박하순(민주노총 정책부장) 등 각 발제자의 주제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가 '국제기업문화와 이문화관리의 이론과 실제: 유라시아의 경우'라는 주제로 지난 21일(목)부터 22일(금) 양일간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진행됐다.

최근 세계화 조류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영업활동이 높아짐에 따라 이문화간의 충돌현상이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아시아기업들이 유럽에서 직면하는 문화갈등 문제와 유럽기업들이 한국 및 아시아 문화권에서 직면하는 문화적 갈등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반부에는 유럽·한국 아시아의 기업문화와 이문화 관리에 관하여 여러 대륙 학자들의 논문이 발표됐고 후반부에는 관련 기업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마인어과 정영림 교수, '세계 말레이시아어 위원회' 상임위원 선정

지난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 말레이시아 위원회'회의에서 우리 학교 정영림 교수(마인어과)가 이 단체 아시아 상임위원으로 선정됐다. 말레이시아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3년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상임위원 1인씩을 선정해 왔다. 이와 관련, 정영림 교수는 "여학연수, 학술발표 등에 힘써 최대한 우리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법대, 10여일간 학술제 열어

'2000 법과대학 학술제'가 지난 18일(월)부터 오는 28일(목)까지 법대 7개학회의 준비로 진행중이다. 유일한 전공 학술제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법대 학술제는 1학기동안 준비해온 학회들의 치밀화된 내용으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노동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등 네 분야의 심포지엄과 모의재판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지난 18일(월) 국제법학회는 '한-미 SOFA 환경과 인간의 권리'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지난 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향리 사격장문제, 미군기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으로 유난히 SOFA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런 흐름속에서 국제법학회의 심포지엄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현황, 미군자체의 환경기준의 문제점, 타국의 SOFA에 있어서의 환경조항을 살펴보고 한-미SOFA상 환경부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21(목) 심포지엄 마지막날 비정규직노동자의 실상을 고발한 노동법학회 학술제 준비위원장 이수범(법·법학 98)군은 "열마전 있었던 롯데호텔 파업, 지금 한창 파업중인 스위스 그랜드호텔 등의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을 보며 그들의 문제를 알리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했다"며 이번 학술제 기획의도를 전했다. 롯데호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영상물로 시작한 심포지엄은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속에서 비정규직의 개념, 현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를 새내기와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특히 학술제를 준비하며 집회도 많이 나갔는데 새내기들과 함께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이번 학술제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고 이군은 말했다. 한편 사회과학학회의 한국프로야구선수의 기본권, 기업법학회의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관련 심포지엄도 열렸다.

또한 25일(월) '흡연피해와 불법행위 책임', 26일(화) '사이버 성폭력과 그 처벌'이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일(수) 공법학회의 준비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활용하는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대강당에서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모의재판은 연극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으로 심포지엄보다는 내용을 쉽고 재밌게 알릴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공법학회 모의재판의 준비위원장 김태규(법·법학 96)군은 "여름방학부터 세미나를 통한 내용고민과 모의재판의 실질적 무대연습 등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 바램을 전했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여학생 취업특강 안내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여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대폭 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여학생 취업특강을 실시하니 취업준비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0. 9. 28(목) 14:00
2. 장 소 : 소극장(6104호)
3. 강 사 : 이영숙 (이토츠상사 인사부장)
4. 연 제 :「여대생 취업특강」
5. 강의내용
   가. 여대생에 한정된 직종을 피할 것　나. 전공과 직종을 맞추려 하지 말 것
   다. 현재보다 미래의 직종에 도전할 것 라. 취업요령
6. 주 최 : 학생취업정보센터 (☎ 961-4436/4464)

2000. 9. 26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재학생 및 교직원 건강검진 안내

1. 검진일 : 00. 9. 26(화) - 9. 27(수) 09:00~16:00
2. 장 소 : 서울캠퍼스 보건실
3. 검사항목 및 검사료
   가. 흉부 X-선 촬영 : 무료(재학생)
   나. 2000년 의료보험공단주관 교직원 건강 검진 가능함 (미실시 교직원)
   다. B형 간염검사 : 1,400원
   라. 기타 항목별 건강검사 : 의료보험수가 적용(안내문 참고)
   (보건실, 단과대학 교학과, 대학원 교학과 비치)
4. 검진기관 : 건강관리협회 검진센터
5. 검사결과 상담일 : 2000. 10. 18(수) 13:30~16:00

서울캠퍼스 보건실

공 고

본 대학교 재입학 시행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고하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재입학 시행규정

제 3 조(자격) 재입학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로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2) 학업성적불량, 재학년한초과, 징계로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3) 복수전공자로서 복수전공 과정을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최소 전공인정학점제 (1996학년도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제 4 조(절차 및 허가)
(1)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 등의 신청서류를 소정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3) 재입학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소속 학과장에게 의뢰하여 심사도록 하고 소속 학과장과 대학장의 의견서를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4) 재입학 신청자가 정원을 초가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할 수 있다.
(5)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기간에 재입학금과 등록금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등의 제반수속을 마쳐야 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제3조 제2항 해당자는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0. 9. 26

교 무 처 장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서울캠퍼스〉
■적성검사 일정(※ 검사 소요시간 : 약 1시간 20분)
· 9월 19일(화) 오후 2시 · 9월 20일(수) 오후 1시
· 9월 28일(목) 오후 1시 · 10월 6일(금) 오후 2시

■집단 프로그램
1. 스트레스 대처 · 훈련 프로그램
· 내용 :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도 : 강이영 상담부장
· 일시 : 9월 27일-10월18 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5시
2.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
· 내용 : 자신의 가치관, 성격, 능력, 흥미, 여가활동 등을 검토,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도 : 강이영 상담부장
· 일시 : 9월 28일-10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5시

■각 프로그램참여는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용인캠퍼스〉
■적성검사 일정(※ 검사 소요시간 : 약 1시간 20분)
· 9월 19일(화) 오후 3시 · 9월 28일(목) 오후 2시
· 10월 6일(금) 오후 3시 · 10월 16일(월) 오후 3시

■집단 프로그램
1. MBTI Workshop
· 내용 : 심격유형을 통한 자기와 타인의 이해 향상 · 지도 : 정선영 전문상담원
· 일시 : 1차 - 9월 26일(화) 오후3시-5시 / 2차 - 10월 10일(화) 오후3시-5시
2. 취업면접 연습 - 지도 : 신경진 상담부장
일시 : 10월 20일(금) 오후 2시-4시
3. 자기표현 훈련 - 지도 : 신경진 상담부장
일정 : 11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30-3:30

■각 프로그램참여는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개인상담, 심리검사, 휴학 및 취업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월 - 금, 10:00 - 17:00
· 모든 이용은 무료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대 비밀보장 됩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외국어연수생 모집
(이단 10주 대학생과정 모집)

1. 모집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유고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터어키어, 이란어, 아프리카어(총24개어)

2. 교육기간 및 시간

과정명	교육기간	수업시간	수업요일
대학생과정	2000.10. 9(월) ~ 12.15(금)	17:30~19:20	월,화,목,금(주4일)

3. 원서접수 및 등록절차
· 원서접수 및 등록 : 2000. 9.29(금)까지 선착순 (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수강원서(본 원 소정양식), 사진1매(반명함판), 등록금
·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자격 제한 없음 (타 대학생도 지원 가능)

4. 반편성시험(Level Test)
· 일시 및 장소 : 2000. 9.30(토) (대학생 14:00, 일반인 15: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 발 표 : 2000.10.4(수) 본 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전화문의 가능)

5. 기 타
· 교육기간중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언어실습실) 등 교내시설 이용가능
· 인터넷 안내 및 접수방법 - http://www.hufs.ac.kr
※외국어연수평가원⇒연수부⇒과정안내⇒온라인(원서접수)
· 문의처 - ☎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제조명한다

부활한 것은 민혁당 '망령'

교사, 경당 사범등 4명 연행, 고소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

99년 김영환, 하영욱, 김경환씨 등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의 구속을 낳았던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이 부활했다.

지난 8월 23~27일 사이에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출신 한용진(36,경기동부연합의장), 최진수(37,민족무예 경당 사범)씨, 이화외국어고 교사 박정훈씨 등 4명이 이 사건에 연루, 연행된 것이다.

본보에서는 1년만에 다시 터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전말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박 선생님의 환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분이 계실 곳은 민혁당도 국가정보원의 심문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학교입니다." 요즘 이화외고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글이 하루 수십건 링크된다.

지난 9월 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혁당 사건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규탄집회에서도 하얀 고복의 여고생 수백명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화외고 지구과학 교사 박정훈(34)씨에게 '학원강사로 일하며 수강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지난해 교사 선임 후에도 민혁당 고교사업부장으로 활동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생 포섭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자택에서 압수했다'며 이 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동료교사는 "증거자료는 박선생이 몸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만든 일상 사업계획서와 평가서"며 "국정원은 일상적인 사업과 관련된 디스켓을 압수, 민혁당 자료인 것처럼 꾸며 용공조작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훈씨 외 다른 3명의 연행자들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대표 박종석씨는 방송통신대학 시험지 교정위원으로 선정, 서울에서 합숙중 연행됐고 같은 날 가택수색으로 컴퓨터 본체, 민주노동당 당원 명부 등을 압수당했다.

99년 첫 번째 민혁당 사건 발표 당시, 국정원은 민혁당이 남한내 북의 주체사상을 받드는 전위당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당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 혁명당'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를 완수'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혁당 총책을 맡고 있는 김영환씨가 92년 3월 민혁당을 결성, 당지도부 밑에 도당 성격의 경기남부, 영남, 전북위원회와 부문별 사업지도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밀유지를 위해 각급 조직을 동창회, 사업소, 영업소 대리점 등으로 위장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고, 북한에서 유입된 3억 2천여만원을 활동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혁당 사건은 지난해 당 총책임자로 지명된 김영환씨 측근 박모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다. 그러다 보니 앞선 박정훈씨의 예처럼 하등 상관없는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이 김영환씨를 구속했던 지난해 8월 이미 수백명 규모의 관련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1년이 지난 현재 검거에 돌입한 것은 모종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00년 10월호 '밟')

즉, 국정원은 민혁당 사건 관련, 방대한 규모의 명단을 작성했으며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이러한 '사건조작'의 의혹에는 모종의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음이 노출되고 있다. 그 주류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튼 남북화해기류와 국가보안법 철폐 흐름에 존재근거가 흔들리는 국정원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는 역대 정권이 집권위기때마다 사용하던 정치적 사건과 비슷하다. 실제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64년 한일회담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바로 '인민혁명당'사건을 발표했고 72년 남북공동성명 이후 이 사건 연루자수십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역시 죄명은 '국가전복기도'혐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지난해 민혁당 하부조직의 혐의를 받은 '영남위원회' 사건은 국정원이 제출한 도청테이프, 디스켓등의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사실상 무효처리되면서 사건이 일부 조작되었음이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감된 울산 동구청장의 부인 이영순씨가 영남위원회 사건의 부당성을 폭로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처럼 여전히 사상조작사건은 존재하지만 그 진위여부는 성장된 시민의식과 역사에 의해 곧 가려진다.

이번 민족민주혁명당 사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다 주목할 점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사상의 자유부문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교류가 자유로워지면서 실질적인 국가보안법이 '어겨지고 있는'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되는 국보법관련 연행자가 속출하는 상황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민혁당 사건관련 연행된 한용진(외대 84학번)씨 부인 황정주씨를 만나

"건강하기를 빌 뿐"

"제 가방이 국정원에서 수색당하고 나왔으니 아마 이 전화도 도청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낮지만 또렷한 음성으로 말을 잇는 황정주씨(31)는 요즘 남편의 석방을 위해 검찰청, 국회 등을 출입하느라 매우 바쁜 듯 했다. 경기동부연합의장이자 우리학교 용인배움터 사반이어과 84학번인 남편 한용진(36)씨가 민족민주혁명당 조직책이라는 혐의로 연행된 것은 지난 8월 26일. 이에 본보에서는 황정주씨에게 그간의 사건진행과정과 심경에 대해 들어보았다.(시간관계상 전화인터뷰 방식을 택했다.)

한용진씨가 연행될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

지난달 26일 저녁이었다. 오빠(한용진씨)와 분당 아탑역에 있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갑자기 양복차림의 건장한 사내 10여명이 튀어나오더니 '조사할 게 있다'며 순식간에 우리를 둘러쌌다. '소속경찰서와 연행사유를 설명해달라'고 말했지만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오빠를 끌고 갔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집 주위에 잠복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한용진씨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연행된 이후 국정원에서 20일간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하고 수치감을 느끼게끔 성기검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오빠는 이런 불법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국정원 수사가 끝나고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국정원이 제시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혀 사실무근의 일이다. 오빠는 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지역에서 경기동부연합에서 청년회 일을 맡아왔을 뿐 민혁당 총책임자라는 김영환씨와는 만나 본 일도 없다.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측은 증거자료로 매한티 집회 참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엉뚱한 사실을 끼워 맞추고 있다.

민혁당 사건 가족 대책위원회의 이후 대응은 어떠한가

일단 인권유린의 소지가 있는 국정원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과 연대해 매일 검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수)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와 민혁당 사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그밖에, 국회의원, 국정원장에게 공동 질의서 보내기나 사회·인권 단체로부터 연서받기 운동등도 벌이고 있다.

가족으로서 심경을 전해달라

오빠가 연행 된 후 20여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있다. 염남위원회 사건이 그랬듯 곧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안에서 건강하기를 빌 뿐이다.

사회단신

매향리 미 전폭기 농섬폭격중 오폭, 위기상황 연출

9월21일 오후 3시38분경 미공군 전폭기가 농섬폭격을 위해 고공선회하다 반경 8000피트의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조업중이던 매향리 주민을 향해 농섬에 투하한 폭탄 유탄이 날아왔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미군기의 폭탄이 주민들이 작업을 하던 갯벌에 2차례나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매향2,3리 주민들은 "작업을 하던 갯벌에서 폭탄 유탄이 선착장에 날리와 1차 충돌이 있은 후 다시 바다쪽으로 날아 갔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접한 주민들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선착장으로 철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금번에 일어난 사고는 우연히 발생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매향리 대책을 알 수 있는 지점"이라며 격분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의 매향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발표 후 재 민주단체들은 '매향리 미군 폭격장이 전면 폐쇄되지 않은한 그 어떤 방안도 소용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림

본보 11면에서 연재중인 그림타래는 지면 관계상 한 주 쉽니다.

외대학보

우리학교 학생 청량리 경찰서로부터 프락치 강요 받아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프락치 공작

우리학교 서양어대 학생이 청량리경찰서 박유화형사로부터 2년전부터 프락치활동을 강요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지난 98년도 1학년때에 집회에 나갔다가 불심검문을 받는 도중 가방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책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유로 연행됐다. 그 후 청량리경찰서 소속 박유화 형사에게서 한달에 한번씩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강요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학생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떤 유인물을 나눠주느냐' '요즘 학생회 사람들은 뭐하느냐' 등등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8월 15일 한양대에서 열린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했던 그를 본 박형사는 집에까지 전화해 부모에게 "자식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아느냐"며 위협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밥이나 한끼 먹자"며 연락을 해 계속적인 만남을 재촉했다.

이를 감지한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윤재(이태리어·97)군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경찰로서 불법행위다"며 2000년 통일대축전은 정부에서 허락한 합법적인 행사인데도 협박하는 것은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된 형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회실로 찾아온 그를 직접 만나본 이군은 "평소에 알고 지내온 동기, 선배의 활동을 얘기하려는 지속적인 강요를 당하고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이 가서 괴로워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김민석(서양·영어 97)군도 지난 5월 18일 '외대인 걷기대회'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청량리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담당 형사로부터 2주간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왔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김군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과거독재정권이 하던 프락치 강요를 행하는 경찰당국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간접적으로 학생회활동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생회장에게 "요즘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느냐"는 전화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이는 청량리경찰서는 우리학교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8월 중순에 총학생회실을 뒤지는 사람을 발견해 소속을 물어보니 외대 베트남어과 다닌다고 했지만 확인한 결과 그런 학생이 없었다"며 알고보니 근처 대학의 총학생회실을 돌고오면 돈을 주겠다고 청량리경찰서에서 시켰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경희대총학생회에서 밝혔다.

7-80년대 학번 선배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얘기들이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사실을 이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회장은 우리 학우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의 대표자들이다.

학생회의 자치활동을 탄압하려는 불법프락치 강요 때문에 주위의 친구·선배·후배들이 양심의 시험대 위에 오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건이 터짐때마다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경찰서측에 지속적인 항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효정 기자 hyodeng@hanmail.net

비둘기 칠판

이문벌

□알립니다

- 재미가 없으면 동아리가 아닙니다. 서우회는 재밌습니다. 들어와보셔서 확인하세요. 〈서우회〉
- 외대연극회 제57회 정기공연이 있습니다. '리쇼몽' 작/아무다기와 류노스케, 연출/김연진, 기획/박범은 2000/10/5 ~ 2000/10/6 오후 6시, 7일(오후3시,6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강당(인문관 2층) 많이 와주세요. 〈외대연극회〉
- 9기 수화교실이 있습니다. 매주 화,목요일. 1402에서 만나요. 늦은 오후 5시30분에서 7시까지예요. 〈손소리샘〉
- 단결마인어과 정기학생총회합니다. 9월 28일 늦은 5시 30분에 3501에서 합니다. 〈마인어과 학생회〉
- 동북고 개강동문회합니다. 9월 28일(목) 5시 강릉에서 만납시다. 〈동북고 동문회〉
- 청주외고 "개강동문회"하고 있습니다. 언제: 9월 29일(금) 늦은 6시 어디서: 카스타운(제일은행 맞은 편) 회비: 만원 〈청주외고 동문회〉
- 강철규의 생일을 축하한다. "잘먹고 잘살아라" 그리고 새 시대서울 청년회도 잘되기바란다. 〈신동구리〉

□팝니다

- 상법강의(박영사, 이철수 지)... 2000년판 완전 새책(이름만 썼어요) 가격은 32,000원인데 깎아서 9,600원입니다. 무자론(지정, 로림)... 26,000원에서 7,800원입니다. 연락처는 011-9079-8725입니다. 연락많이 주세요. 〈책파는 사람〉

왕산골

□알립니다

- 평화문제연구회 '만들레영토'에서 당신의 빈가슴에 한송이 민들레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민들레영토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할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011-774-4065(강석헌) 〈민들레영토〉
- 하안공간에서 그림을 사랑하는 새얼굴을 '환영'합니다. 학생회관 210호로 노크하세요. 〈하안공간〉
- 여성학모임이 있어요. 우리는 말만하는수다장이가 아닙니다. 수다로서 그동안 우리에게 씌어졌던 굴레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굴레를 실전으로 벗는 수다장이입니다. 매주 수요일 늦은 6시 학생회관 103호로 오세요. 진정한 수다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운 (019-220-8596)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수다장이〉
- 급구합니다. 아웃사이더의 00학번 새맴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키보드를 다룰 분 연락주세요. 학생회관 지하 103호로 연락주세요. 〈아웃사이더〉
- 왕산 유일의 만화동아리 그림사람이에서 새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319호로 오세요. 〈그림사람〉
- 00학번 보세요. 2학기 세민전, 동연제 정기공연을 할 00학번 남학우를 구합니다. 악기연주나 노래 그리고 좋은 사람이 그리운 분은 주저말고 학생회관 308호로 오세요. 〈기다리는 사람〉
- 사연, 축하메세지, 신청곡을 받아여. 어디루? fox207@hanmail.net 언제 아무때나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외대교육방송국〉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고 황순원 작가 추모 서평 - '목넘이 마을의 개'

곱씹어 보는 한민족의 강한 생명력

얼마 전에 작고하신 황순원님의 글들은 우리에게 많이 읽혀졌다. 중고등학교 때 '소나기'라면 누구나 가슴아픈 꼬마들의 사랑이야기로 기억하며 재밌었다며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기억할 것이다. 이것 말고도 '독짓는 늙은이' '별' '이리도' 등 수능시험 준비로 읽었던 단편소설이 많다. 일제시대와 더불어 해방과 6.25 전쟁시 우리민족의 고뇌와 역경을 서정성이 풍겨나는 글로 그릴 수 있었던 작가이다. 이번에 내가 주목했던 글 '목넘이 마을의 개' 역시 일제시대의 이주민들의 끈질긴 생존력을 빗대어 표현한다. '개'라는 동물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며 그들과의 끊임없는 생존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본능적이고 원시적인 생존 욕구를 가진 개를 주인공으로 추대하면서 민족성을 더욱 강조한다. 이 글을 읽고 고등학교 때와 다른 느낌이 살아났고 다르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첫 테이프는 목넘이 마을의 배경으로 시작한다. 서북간도 이삿꾼들이 등장하여 그 당시 상황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글의 주인공인 신동이의 등장을 알린다. 목넘이 마을에 닿은 지칠대로 지쳐버린 해방후 한 이데올로기가 정착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동이는 당연 알캐이다.

생산력을 나타내는 여성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민족성의 정착을 굳힐 수 있는 번식력이다. 원래 그 마을에 살고 있던 큰 동장네와 작은 동장네 개와 인연을 맺는다.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자주 써왔던 방법은 양가 귀족들간의 결혼이다. 결혼을 함으로써 이민족간에 합일점을 가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동이와 검둥이; 바둑이와의 환상적인 결합이다. 큰 동장, 작은 동장네의 개와 신동이를 이어준 것은 우선 그 마을에서는 가장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집 개들 역시 나중에는 인연을 맺긴 하지만 먼저 그들과 이데올로기를 맞대면서 그 계기로 시작된다. 만약 머리를 한쪽으로 약간 더 치우친다면 그 동네 모든 개들과 연을 맺음으로써 포용력을 넓혀버리고 신동이는 자신의 허기와 본능적인 욕구도 해결한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버린다면 모두가 해피엔드가 되지만 이렇게 한 민족의 생존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이제는 신동이가 미친개로 돌변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동네 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불쾌함과 더불어 적대감을 갖는다. 이데올로기는 낯선 다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동장이 선두타자로 신동이를 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미친개 죽이기 운동을 열었다. 더욱 부축이는 것은 신동이의 눈 속에 푸른 핏빛 바로 새로운 생명 이데올로기이다.

보수적인 마을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상과 합쳐진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작용하여 미쳤다는 병을 정담화시키는데 한몫을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난다. 간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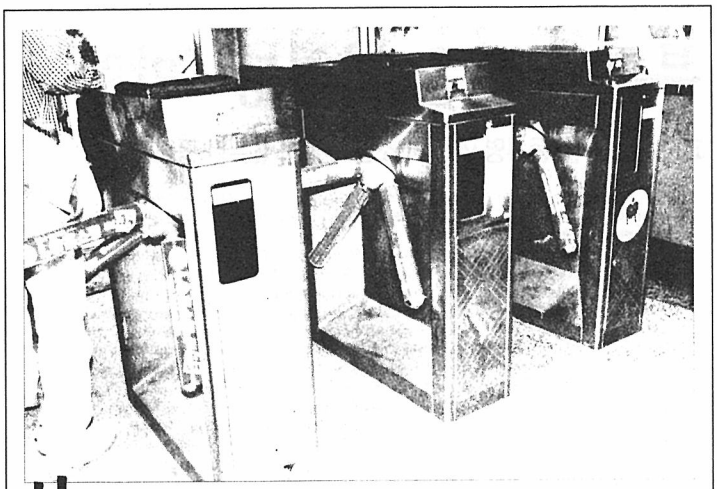
황순원(1915~2000)

평남 대동 출생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 졸업
경희대학 교수, 예술원 회원을 역임
1931년 동광지에 시 '나의 꿈'을 발표 한 후 문단에 등단
1934년 첫 시집 '방가'를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
1935년 삼사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와 소설을 함께 발표하고,
1940년 단편 소설집 '늪'을 간행하면서 소설에 전념하였다.
해방 후에는 교직에 몸담으면서 '독짓는 늙은이(1950)', '곡예사', '학' 등의 단편과 '별과 같이 살다(1947)', '카인의 후예(1953)', '인간접목(1955)' 등 장편소설을 발표
2000년 86세의 나이로 작고

할아버지, 혼히들 말하는 현명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역시 신동이를 염려하고 도와준다. 속으로 들어가자면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끔 두문불출하는 김선달씨 좀 보자. 웃기는 친구라고 소문난 그는 신동이에게 무엇인가로 의미 부여를 받았는지. 아마 사건의 재미난 전개를 맡았는지도 모른다. 아니게 모르게 나쁜놈으로 찍힌 큰 동장과 작은 동장을 골려주는 역할을 해낸다. 우리로 말하자면 나쁜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 선생님 등뒤에 바보라고 써서 붙였던 친구말이다. 말하자면 원래의 이데올로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신동이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지금쯤 모든 개들의 씨를 받은 새끼들을 낳을 차례이다. 어딘가에서 아빠들을 닮은 강아지를 보살피고 있다. 이젠 합일점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역시 간난이 할아버지. 골고루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이것은 한 피로 이어진 생명력이 강한 민족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해방 후에 부산스러운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한민족이라는 강한 존재의 의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목넘이 마을의 개를 읽으면서 단순히 개들이야기일까? 의문을 웃으며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새로운 맛이 난다는 점도 염두해두면 좋을듯 싶다. 지금은 시험이라고 대충 요약만 읽었던 때가 아닌만큼 예전에 읽었던 한국현대 단편소설 한편씩 읽어보는 것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함미선
(동학 · 아랍어 99)



사진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보이지 않고 간판만 보이는 건물을 지나 광고로 화려하게 도배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갑니다. 헉 지하철출입구에 까지 따라온 광고....휴 많은 것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럴수록 하얀 화선지에 난을 그리던 옛 선조들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사진부

영화감상문 -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JSA)

"너… 내가 북한친구 소개시켜줄까?"

"너…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까?"

묘한 여운이 남는 영화다. 어렵게 표를 구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영화를 보고난 후에도 알 수 없는 아릇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한참을 서성거려야 했다. 그렇다고 나 혼자 그렇게 헤매는 것도 아닌 듯 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별로 말이 없었다.

영화를 보고난 후면 언제나 그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던 소란스러움도 별로 느끼지 못한 채 사람들 속에 섞여나온게 전부였다.

이런 아릇한 감정이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를 연일 매진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통일의 분위기가 점점 높아져만 가는 흐름속에서 비롯된 단순한 호기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있는 시간,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동안 나는 그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혔고 그 여운은 쉬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든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남한의 군인 이수혁 병장과, 남북의 팽팽한 대립지역인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남북은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여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스위스군 소령이 파견된다. 그녀는 사건의 담사자인 남한의 이수현 병장과 북한의 오경필 중사를 만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사건 현장의 또 다른 인물 남성식 일병의 투신으로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영화는 수사를 하는 현재와 사건 발생 전의 시간을 교차한다. 비무장지대 수색 중 지뢰를 밟아 낙오된 이수혁 병장은 북한의 오경필 중사와 전사 정우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 후 서로 감사와 안부의 편지를 주고 받던 중 이수혁 병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 후 군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남한의 남성식 일병도 이수혁 병장과 함께 넘어가 이들 네 사람은 남북의 병사가 아닌 형과 동생으로 만나 우정을 쌓아간다. 그러나 남한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선을 넘은 날 사건은 발생하고 이들의 '비밀'은 비극이 되고 만다.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 중에서 왜 유독 이 영화만은 틀리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것은 우선 북한 병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그린 영화는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반북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영화 '쉬리'에서 보면 북한의 군인들은 '조국통일만세'를 외치며 서울을 전복시키고 무력통일을 하기위해 총을 쏘아대는 상식밖의 모습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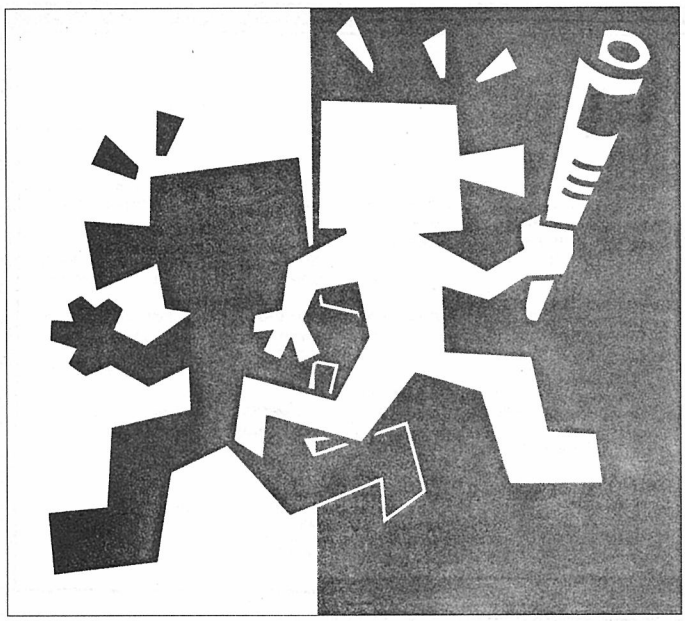
입에 폭탄을 넣어 죽는 순간까지도 '조국통일만세'를 외쳐대는 여군은 북한을 통일을 할 대상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총질을 해대는 테러단체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남과 북의 군인들은 포르노 잡지를 보고, 김광석을 들으며 애인의 사진을 들려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다. 영화는 분단의 대립 속에서 진실을 은폐함으로서 평화가 유지되는 아이러니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감독은 전쟁을 알지 못한채 분단 의식조차 희미한 젊은 세대에게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고 '분단'이라는 무거운 소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분단 상황의 부조리함과 비극성, 아이러니를 영화에 담으면서 따뜻한 인간애와 감동을 전한다.

가정환경을 이유로 이영애를 해고시키는 억지스런 사건의 연결 등은 다소 영화의 흐름을 짜맞추는 식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자꾸만 떠오르는 이유는 영화상영동안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양쪽 병사들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과 영화가 끝난 뒤 한참이나 머물렀던 묘한 기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너…내가 친구 소개시켜줄까?"

이수혁 병장이 남성식 일병에게 건넨 이 한마디 말처럼, 더 이상 북한은 적이 아닌 친구이며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뜨거운 가슴 하나로 통일세대를 꿈꿀 수 있었으면 한다.

김민정
(동양 · 중국어99)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합니다.

모집대상 : 00학번 새내기
모집전형 : 수시모집
모집부분 : 대학부, 사회부, 사진부, 문화부, 학술부, 만화부
문 의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기자실
서울)961-4152 용인)3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